바다 이야기

중학생용

해양 교재(역사편)

Contents

Ⅰ

인류 역사의 한 무대로서의 바다 4

Ⅱ

세계 해양 강국의 역사 12

1. 고대의 해양 국가 14
2. 중세의 해양 국가 19
3. 근대의 해양 국가 24
4. 현대의 해양 국가 34



Ⅲ

우리나라의 해양사 38

1. 고대 : 삼국시대까지 40
2. 고대 : 남북조시대 45
3. 고려 50
4. 조선 53

Ⅳ

해양인물 탐구 60

1. 외국의 해양인물 62
   1) 정화 62
   2) 콜럼버스 65
   3) 넬슨 68
2. 우리나라의 해양 인물 72
   1) 이사부 72
   2) 장보고 74
   3) 이순신 79



I

인류 역사의 한 무대로서의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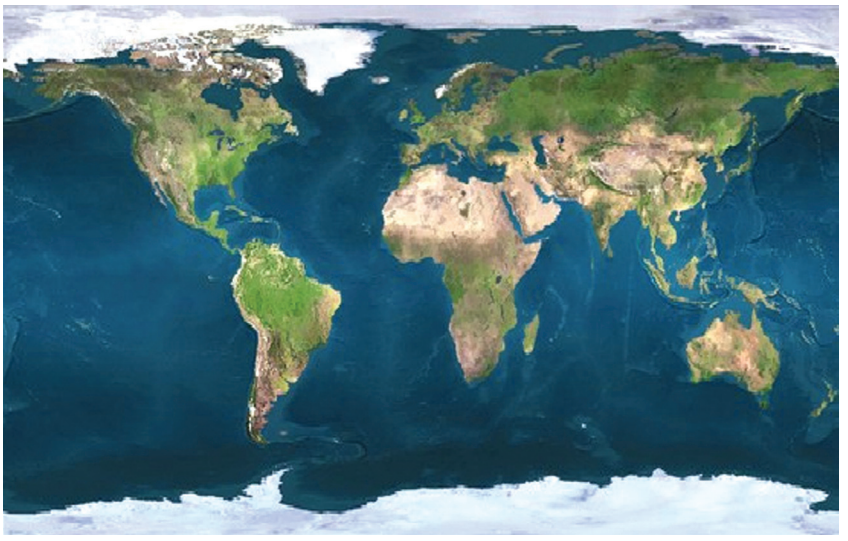




I. 인류 역사의 한 무대로서의 바다

I. 인류 역사의 한 무대로서의 바다

인류문명의 4대 발상지는 바다와 접한 큰 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 바다를 준거의 틀로 삼을 때,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황하 문명과 인더스 문명보다 상대적으로 인류가 활동하는 데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바다를 주변에 가지고 있다. 특히 지중해는 대양이라 해도 내해로 불릴 수 있을 만큼 비교적 잔잔하고, 사방 끝단의 거리가 길지 않으며, 또한 많은 섬들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배를 이용한 인간의 왕래가 가능한 곳이었다. 그중에서도 수많은 섬들이 징검다리처럼 점점이 박혀



▲ 위성사진으로 본 지구의 모습. 육지보다 바다가 더 넓고, 바다를 통하지 않고서는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 http://jet_lim.blog.me/80108305889)

있어 다른 섬들 간의 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멀지 않은 지중해 동부 해역과 에게해 그리고 그 연안지역은 서구 문명의 근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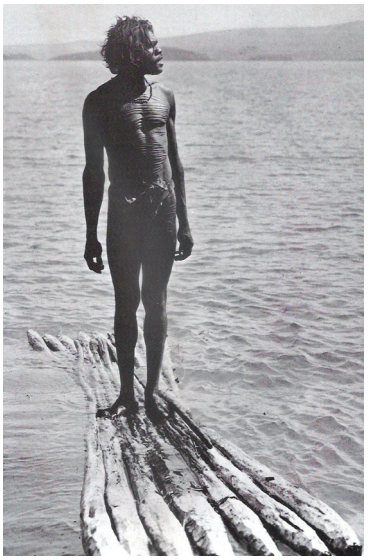
유럽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킨 것은 "바다사람들(sea peoples)"로 불리던 페니키아인들이었다. 그들은 상선과 군함을 최초로 구분하여 건조하고 사용했으며, 기원전 12세기에 지브롤터 해협과 북아프리카까지 해상왕래를 하였고, 기원전 600년 전후에는 아프리카 대륙을 일주하는 항해를 하기도 하였다.

서구의 고대는 지중해 제해권의 쟁패전이라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는 놀라운 해상활동으로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탈리아 반도에서 흑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활동무대를 확장하였다. 또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물리친 후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대제국(大帝國)을 비로소 건설할 수 있었으며, 후에는 대서양 연안을 따라 잉글랜드까지 영토를 넓힐 수 있었다.

유럽 역사의 무대가 문자 그대로 유럽대륙 전체로 확대된 것은 바이킹 덕분이다. 그들은 잉글랜드 지방은 물론 북해를 횡단하여 프랑스를 침략했으며, 나아가 이베리아 반도를 돌아 지중해의 이탈리아 반도에까지 진출하였다. 일부는 대서양을 서쪽으로 항해하여 아메리카 대륙의 뉴펀들랜드까지 진출하였다. 한편 동쪽으로 진출한 사람들은 대륙과 강을 통해 흑해까지 진출하였다. 그들은 침략한 곳에서 지배층이 되었으며, 교역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이주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780년부터 1070년까지 약 300년간은 서구의 역사에서 "바이킹 시대"로 불리며, 그들의 흔적은 해양언어, 문화, 상업 등에 많이 남아있다.

유럽 역사의 무대가 대양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된 것은 대항해 시대[1] 이후였다. 15~16세기에 유럽인들은 지중해, 대서양, 북해는 물론 인

1) 서구인들이 활동무대를 세계로 확대해 나간 15~16세기의 200여 년간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흔히 "발견의 시대(Age of Discovery)"와 "대탐험의 시대(Great Age of Exploration)"로 불리는데, 이 용어들은 서구의 중심론과 우월론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해양사 입장에서 보면, 세계역사에서 대양항해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라는 점에서 "대항해시대(Great Age of Navigation)"로 표기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



▲ 원시 형태의 선박 : 호주 원주민의 뗏목 (자료 : captain Alan Villers, Men, Ships and the Sea, Washington D.C.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1973, p. 8)

도양과 태평양까지 항해하면서 자신들에게 미지의 세계였던 곳을 탐험하고, 정복하였다. 그들은 우수한 무기와 항해수단을 이용하여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탐험지를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나 식민지로 선언하였다. 심지어 유럽 각국은 경쟁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사실상 인류문명의 4대 발생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동양은 고대에 찬란한 문명을 영위하고 발전시켰지만, 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궁극적으로 해양의 이용을 소홀히 함으로써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계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었다.

동양에서 해양을 성공적으로 이용한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서아시아의 아랍인들은 해상실크로드를 개척하여 아시아의 동·서 양 끝단을 잇는 교류활동을 했으며, 심지어 서구인들이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항해하는 데 뱃길을 안내하는 도선사 역할까지 하였다. 중국인들은 여러 차례의 해상원정을 감행하여 동남아시아는 물론 인도와 아프리카까지 해상왕래를 하여 화교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런 까닭에 "해상무역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사를 4차에 걸친 대항해시대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존재한다.[2] 이 주장에 따르면, 아랍의 다우[3]가 페르시아 만, 아프리카 동해안,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을 연결하는 "제1차 대항해시대"가 있었다. "제2차 대항해시대"에는 중국 연해민이 정크를 타고 동남아시아, 인도, 페르시아 만까지 항해하여 다우 교역권과 정크[4] 교역권이 공존하게 되었다. "제3차 대항해시대"는 유럽의 대항해시대를 가리킨다. "제4차 대항해시대"는 증기선이 세계의 바다를 고속으로

2) 미야자끼 마사카쓰, 『정화의 남해 대원정』, 도서출판 일빛, 1999, 일본어 초판 발행일 1997, pp. 269.

3) 다우(Dhow)는 1개 이상의 돛을 달고 있으며, 아리비아반도·인도·아프리카 해안에서 주로 사용된 소형 선박이다. 고대부터 사용되었으며 1960년대까지 바람과 파도를 이용하여 페르시아 만과 동아프리카를 잇는 교역선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마약 거래나 해적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을 지칭하기도 한다.

4) 정크는 중국의 전통 선박을 지칭하는 용어로 1명이 타는 전마선에서 길이가 140m나 되는 정화의 보선(寶船)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며, 그 명칭도 용도와 지역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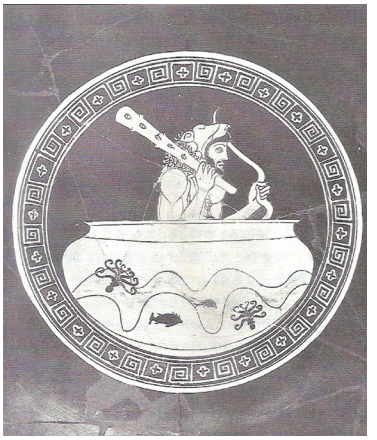
연결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동양의 해양활동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 대부분의 시기에는 해양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무시해 버렸으며, 이에 따라 근·현대의 세계적인 추세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었다. 아시아의 역사와 유럽의 역사가 만나 본격적으로 서로 영향을 준 것은 탐험의 시대 이후였다. 인도양과 태평양에 온 유럽인들은 아시아의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에 동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식민지 쟁탈, 제국주의, 팽창주의, 문화적 우월주의, 인종주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상,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 추구와 일방적인 전쟁 수행은 유럽 중심주의의 과도한 전개욕구에서 비롯되었다. 반면에 아시아는 유럽인을 오랑캐로 간주하고 이질적인 서구 문화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온 문화를 고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시아는 근대에 이르러 바다를 통해 밀려오는 유럽인의 압력과 무력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은 동양보다 훨씬 더 지독한 경험을 하였다.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구가해 온 원주민들은 유럽인의 팽창 야욕 때문에 순식간에 몰락하였다. 이 지역의 고유 문명은 대항해 시대부터 송두리째 사라지거나 변질되었으며, 종족이 멸족되거나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었다. 그 대신 그들의 터전은 유럽인의 거주지가 되었으며, 그 땅에는 유럽 문화가 이식되었다.





▲ 원시적 형태의 선박 : 좌는 아프리카 챠드 호수의 파피루스 배, 우는 웨일즈 지방의 가죽으로 덮어씌운 바구니 배 (자료 : captain Alan Villers, Men, Ships and the Sea, Washington D.C.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1973, p. 15)



▲ 원시 형태의 선박 : 기원전 6세기 헤라클레스가 탄 것으로 전해지는 항아리 배 (자료 : 라이오넬 카슨, 김훈 옮김, 『고대의 배와 항해 이야기』, 서울 : 가람기획, 2001, p. 16)



▲ 원시 형태의 선박 : 갠지스 강 벌목꾼의 짐승가죽 배 (자료 : captain Alan Villers, Men, Ships and the Sea, Washington D.C.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1973, p. 14)

이러한 유럽과 다른 지역의 관계는 거의 5세기가 지난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이며 대등한 관계로 바뀌었다. 유럽인들의 장기간에 걸친 소모전으로 유럽세계가 기력을 소진했을 때, 다른 세계에서는 민족주의가 발현했으며, 독립국들이 속출하였고, 많은 국제기구들이 창설되었다. 또한 물질문명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자가당착에 빠진 유럽인들은 비교적 정신문명을 중시해 온 동양을 이해하고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대륙들도 인구, 환경, 자원, 국제관계 등 여러 분야에서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변해온 인류 역사에서 해양은 그 변화를 일으킨 수단이자 변화가 일어난 공간 역할을 하였다. 인류 역사의 무대가 전 지구로 확대된 데에는 해양 때문에 가능했으며, 실제로 해양 이용을 주도한 국가나 민족이 세계사를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Ⅱ

세계 해양 강국의 역사

1. 고대의 해양 국가
2. 중세의 해양 국가
3. 근대의 해양 국가
4. 현대의 해양 국가





Ⅱ. 세계 해양 강국의 역사

Ⅱ. 세계 해양강국의[5]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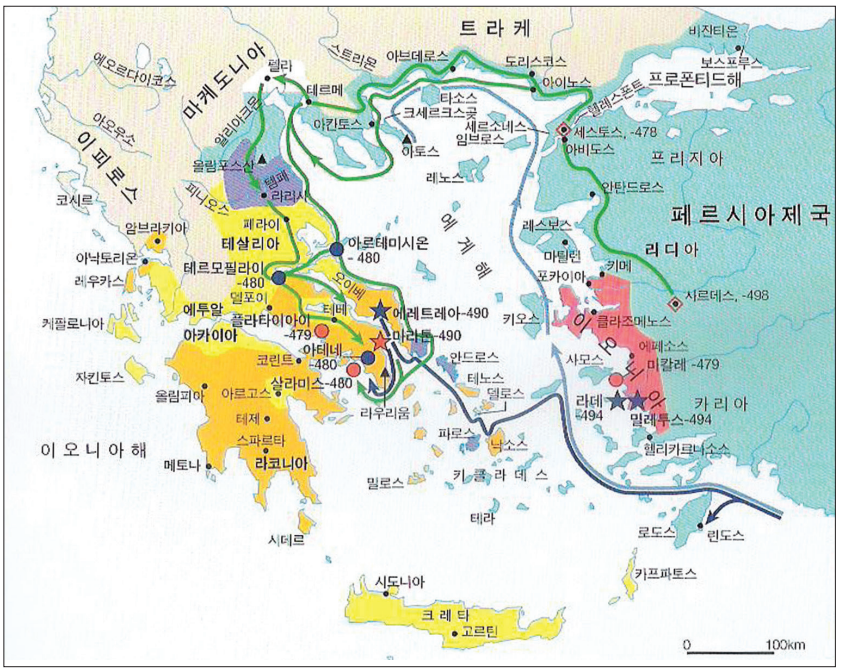
1. 고대의 해양강국

고대에는 해양활동을 활발하게 한 지역이 서구밖에 없었다. 동양은 주로 육지에서 활동했으며, 그나마 물과 관계된 활동이라고 해보았자 강이나 하천에서의 활동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활발한 해상활동이 있었지만, 그 해상활동을 계승한 것이 유럽이기 때문에 서구 역사와 연계되어 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유럽의 고대사에서 처음이면서 동시에 본격적으로 해양활동을 한 것은 그리스의 폴리스(polis)이다.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과 수많은 섬들이 도처에 널려 있으며, 해안에 암벽이 많아 마을들이 육상보다는 해상 왕래가 더 용이하고, 또한 그리스 반도의 토지가 경작지로 적당하지 않아 외부에서 곡물을 수입해야만 했던 자연·지리적 조건 때문에 폴리스들 중에는 동부 지중해와 에게 해에서 주로 활동하던 해양국가의 성격을 띤 것들이 많았다. 실제로 당시 외국인의 눈에는 다음과 같이 보였다

5) 해양강국은 해양강대국의 준말이다. 국제정치, 문화, 경제, 과학기술, 군사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주변국이나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 흔히 해양대국, 해양강국, 해양열강이라고도 한다. 영어로 강국이나 강대국은 strong power, great power, powerful state, power 등을 사용한다. 경제강국(economic power), 군사대국(military power)과 마찬가지로 해양강국은 maritime power나 marine power로 표기되는데, 전자의 사용이 일반적이다.

"아테네인들이여, 여러분 중 대부분은 바다나 그와 연관된 곳에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 바다는 여러분에게 자연적인 요소 즉 생득권입니다."[6]



▲ 페르시아 전쟁 상황도
(자료 : 조르주 뒤비, 채인택 옮김, 『지도로 보는 세계사』, 서울 : 생각의 나무, 2006,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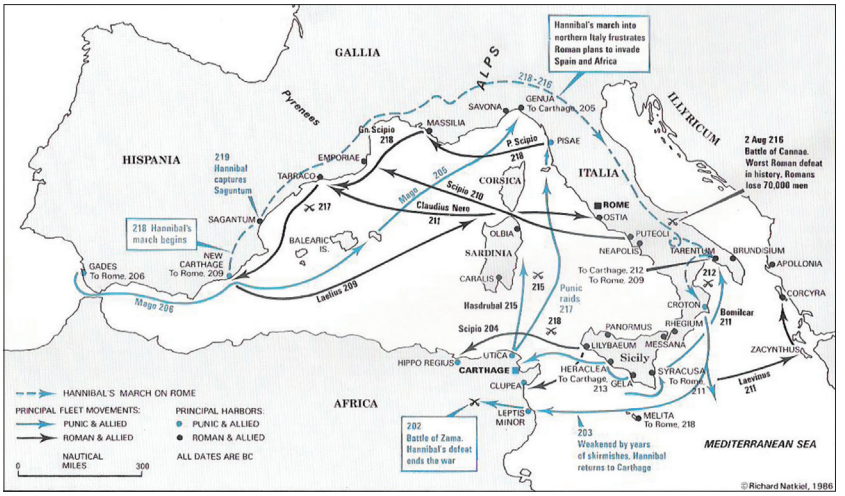
아테네(Athens)의 최고행정관이었던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 B.C. 524–460)는 "바다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하여 아테네의 해양제패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해양력을 바탕으로 아테네는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Salamis) 해전에서 승리한 후 여세를 몰아 페르시아전쟁(B.C. 492–480)에서 결국 승리하였다. 전쟁 후 델로스(Delos) 동맹의 맹주가 된 아테네는 직접민주제를 발전시키면서 에게 해, 지중해 동부, 이탈리아반도 남부지역에서 해상교역활동을 하고 해외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고대 그리스에게 바다는 생명선이었던 것이다.

한편 로마는 기원전 8세기에 작은 도시에서 건국된 후 기원전 270년

6) Chester G. Starr, The Influence of Sea Power on Ancient History(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 30과 p.47.

경에 이탈리아 반도 전역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카르타고(Carthage) 전쟁과 118년 동안이나 싸웠던 포에니전쟁(B.C. 264–147)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이었다.

"바다사람들"로 불리던 페니키아인의 일파가 해상으로 망명하여 건국한 카르타고는 당시 놀라울 정도로 해상무역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지중해의 아프리카 해안은 물론 대서양 연안과 심지어 아일랜드까지 진출하여 싸게 구입한 상품을 지중해의 다른 상인들에게 비싸게 파는 중개무역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곳곳에 상업기지, 창고, 식민지를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카르타고는 부유해지자 국방을 용병에게 맡겼으며, 정쟁(政爭)이 많이 일어났고, 바다를 지키는 데 소홀하였다. 비록 한니발(Hannibal, B.C. 247–183/181) 같은 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타고는 해전의 패배로 지중해의 제해권을 유지하지 못하여 결국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소멸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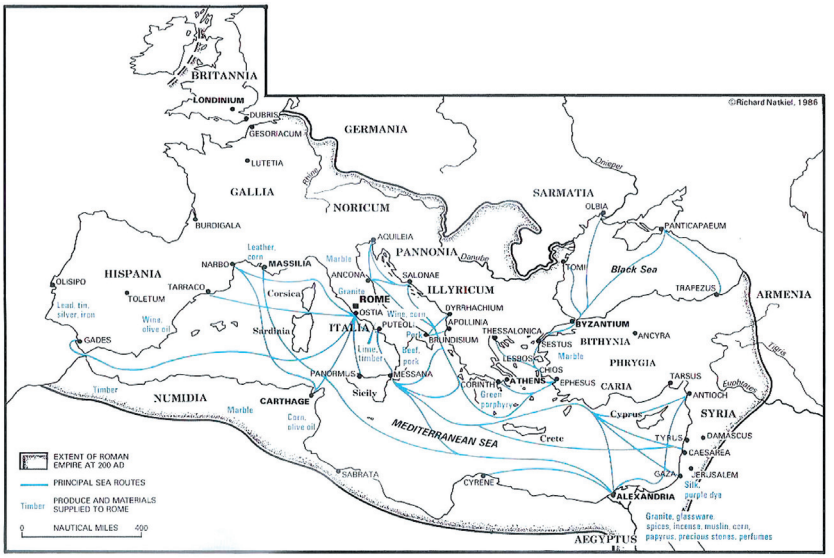


▲ 포에니 전쟁 상황도 (자료 : Richard Natkiel & Antony Preston, Atlas of Marine History, London, Weidenfield & Nicolson, 1986, p. 8)

승전국으로서 카르타고로부터 해양관련 자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로마는 지중해를 자신들의 호수처럼 이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중해 동

부에서는 헬레니즘 문화권, 이집트, 유대, 서부에서는 아프리카 북부의 카르타고, 히스파니아, 갈리아, 지중해 밖으로는 브리타니아, 라인 강 서쪽의 게르마니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전체적으로 지중해 연안 전체를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의 로마제국은 수세기 동안 '로마의 평화시대(Pax Romana, B.C. 27–A.D. 180)'를 구가할 수 있었다.

평화시대를 이룩하는 데 로마의 해양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로마문명을 전파하는데 로마의 도로들이 준 영향에 대해 아주 많이 듣고 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킨 로마함대의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히 무시해 왔다. 로마제국이 그 도로들 만큼이나 함대에 많이 의존했던 사실은 아직도 입증될 수 있다."[7] 로마제국은 방대한 식민지와 속주들로부터 공물로 받



▲ 기원후 200년 경 로마제국의 영토와 해상무역로
(자료 : Richard Natkiel & Antony Preston, Atlas of Marine History, London, Weidenfield & Nicolson, 1986, p. 18)

은 물품을 가지고 중개무역을 하여 부를 축적했으며, 로마제국을 떠올릴 때 연상되는 코스모폴리탄적인 문화와 극단적인 사치 및 향락풍조는 바로 이 부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로마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7) J. H. Rose, The Mediterranean in Ancient Times(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3), p.100과 pp.145–146.

제국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기에 일종의 지중해제국(地中海帝國)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로마제국의 형성과 유지는 로마인들이 지중해를 마음대로 항해하여 오갈 수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했다. 강성해진 사라센제국(Saracens)이 아프리카 북부지역과 에스파니아 남부지방을 장악하고, 지중해의 제해권을 잠식하며, 로마제국을 초생달 모양으로 포위하자 로마제국은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 서복의 동정 항로 (자료 : http://slowalker.net/130075928113, 2009. 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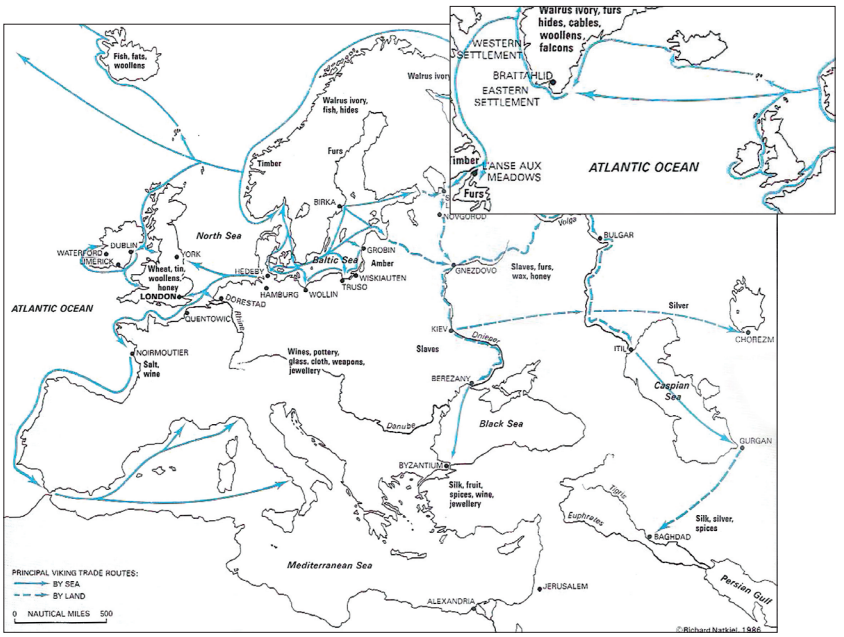
아시아에서도 해양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기원전 219년부터 210년 사이에 진시황의 명령으로 서복(徐福, 일명 徐市)은 불로장생약을 구하기 위해 60척의 대 선단을 이끌고 한반도와 일본열도까지 2회 원정을 갔다. 기원전 161년에 동로마제국을 일컫는 대진(大秦)의 사절 안돈(安敦)이 중국에 왔다. 기원전 111년에 한무제(漢武帝)는 베트남 북부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했으며, 그곳에서 인도 남부까지 항해하는 데 근 1년이 걸렸음에도 해양을 통해 왕래하였고, 동남아와 인도 남부지방의 국가들과 해양을 통해 조공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베트남 지역은 고대 중국과 인도를 잇는 해상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기원 후 300-400년에

는 오호(五胡)로 일컬어지는 북방민족들의 침입 때문에 해상교역은 침체기에 이르렀다.

난을 피해 남쪽으로 이주한 북방 한인들은 난세가 오래 지속되자 남조국가들을 발전시키고, 상류층이 되었다. 남중국에서 사치품과 불교관련 용품의 수요 증가 때문에 420년경부터 동남아시아 지역민들의 주도로 인도와 중국을 잇는 해로에서 해상교역이 다시 활발해졌다.

2. 중세의 해양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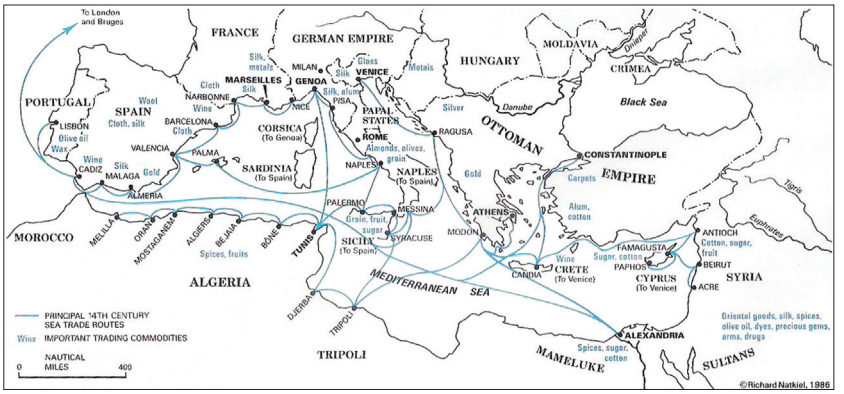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유럽의 중세에 대해서는 장원, 길드, 교회 등을 중심으로 한 대륙 중심의 봉건사회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이슬람 세력의 팽창 때문에 해양활동을 활발하



▲ 바이킹의 육 · 해상 활동로 (자료 : Richard Natkiel & Antony Preston, Atlas of Marine History, London, Weidenfield & Nicolson, 1986, p. 25)

게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유럽인들이 그리스와 로마 즉 고대에 대해 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세 중반기부터 유럽인들은 해양활동을 다시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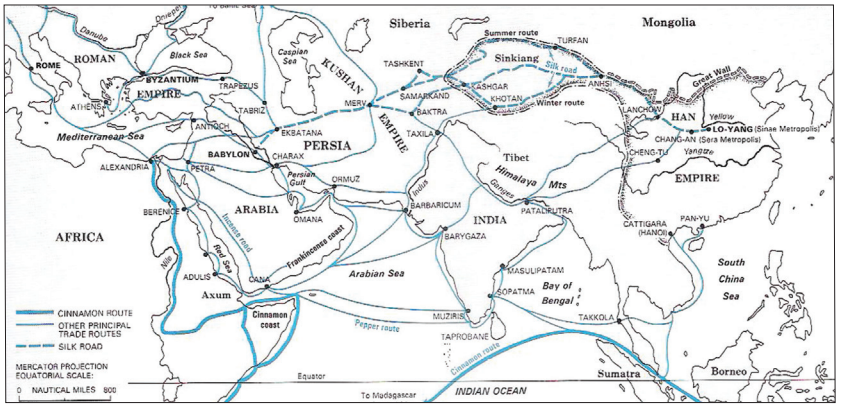
유럽 역사의 무대를 유럽 대륙 전체로 확대시킨 것은 바이킹(Vikings)이었다. 그들에게는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 즉 해양력이 있었다. 그들은 바다에 대한 방대한 지식, 능숙한 선박조종술, 대양을 오갈 수 있는 항해술, 수많은 항해경험을 갖고서 발트 해, 잉글랜드, 서유럽 연안, 대서양 북부, 동방에서 중개무역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역도시들 중 일부는 국가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5세기 경 독일 북부의 앵글족, 유럽 북서부의 색슨족, 덴마크의 유트족은 바다를 건너 영국에서 원주민인 켈트족을 몰아내고 영구적인 터전을 마련하여 앵글색슨의 시조가 되었다. 그들은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6–1506)보다 5세기나 앞서 아메리카 대륙을 왕래했으며,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곳에 머물러 주인으로 행세하였다. 850년경에는 일단의 바이킹이 동쪽으로 진출하여 러시아에서 국가가 형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프랑스 북부에 침입한 바이킹은 911년에 노르망디 공국을 건설했으며, 러시아의 강들을 따라 흑해의 콘스탄티노플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 14세기 유럽의 해상무역로 (자료 : Richard Natkiel & Antony Preston, Atlas of Marine History, London, Weidenfield & Nicolson, 1986, p. 35)

바이킹은 대서양, 북해, 발트 해, 지중해, 흑해 등을 고유의 선박으로 항해하여 한편으로 습격과 약탈 혹은 정복활동을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문화교류와 해상무역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들의 활동은 바이킹의 해상이주가 전개된 780–1070년의 약 300년간의 시기를 바이킹 시대(Viking Age)로 호칭할 정도로 대단하였다. 오늘날 서구세계의 해양관련 용어와 제도의 기원을 바이킹의 언어와 제도에서 찾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후 바이킹의 활동은 북구에서 발생하여 129개 이상의 도시들이 참여한 한자동맹(13–15세기)으로 이어졌다.[8)]

중세 말에는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활발한 해상활동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여 자치를 할 수 있는 도시국가들이 되었다. 베네치아(Venezia, Venice), 제노바(Genova, Genoa), 피렌체(Firenze, Florence), 나폴리(Napoli, Naples)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들은 지중해에서 동양과 서양의 중개무역을 했으며, 나아가 대서양 연안을 따라 항해하여 프랑스 연안과 영국 남부 연안에서까지 무역활동을 하였다. 또한 도시국가들은 십자군운동(1096–1291)의 제3차 운동부터 십자군을 해상으로 수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근대의 여명을 열었던 르네상스가 이 도시국가들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이러한 해양활동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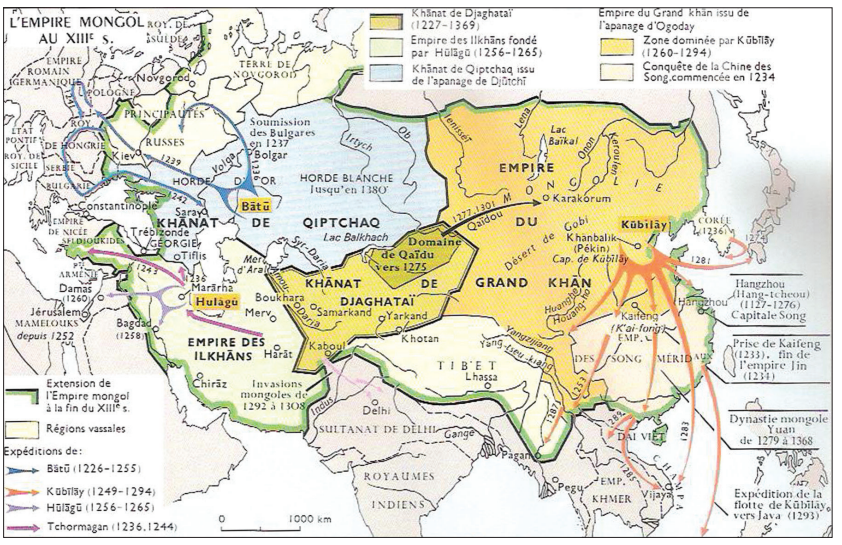


▲ 실크로드 시대의 육 · 해상 무역로 (자료 : Richard Natkiel & Antony Preston, Atlas of Marine History, London, Weidenfield & Nicolson, 1986, p. 19)

8) 김주식, "바이킹시대의 해상교역활동," Strategy 21, Vol. 10. No. 2, Winter 2007, pp. 191–232.

아시아에서도 해양활동이 줄곧 이어졌다. 수(隋, 589–618)는 양제(煬帝)의 치세 때 입공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베트남 남부의 참파(Champa)와 오늘날 타이완에 해당하는 유구(流球)에 해상원정군을 그리고 말레이 반도의 적토국(赤土國)에는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지극히 단기간의 활동일 뿐, 수가 존재하던 시기는 어디까지나 대륙 루트를 중시함으로 해상교역의 침체기로 간주된다.

당(唐, 618–907)은 동남아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사절이 많이 오간 나라였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스리위자야(Srivijaya) 왕국은 해상교통의 요지인 말라카 해협과 순다 해협을 장악하여 15개 속국을 거느린 해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750년 전후부터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인들이 주도하던 해상무역에 아랍인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아랍인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760년 안사(安史)의 난(755–763)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양주와 초주에서 아랍 상인 수천 명이 살해되었고, 또한 황소(黃巢)의 난(875–884) 때에는 반란군에 의해 아랍인 12만 명이 살해된 사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8–9세기 전후에는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달, 해상교역을



▲ 13세기 몽골제국의 영토 (자료 : Georges Duby, Atlas Historique, Paris : Librairie Larousse, 1978, p. 185)

중시하는 왕조들의 출현, 남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등에 힘입어 해상교통로가 다시 중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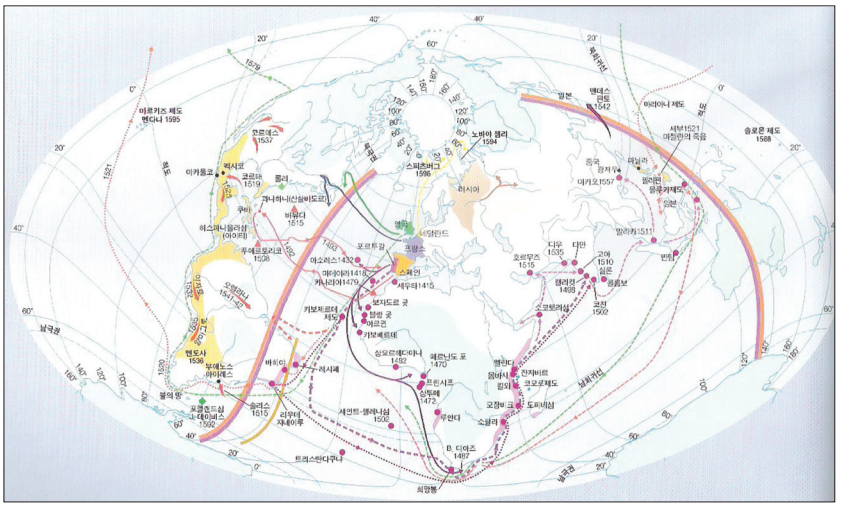
송(宋, 960–1279)대에는 당대보다 조공사절이 약 두 배나 더 많이 왕래했는데, 주요 해상무역세력은 아랍인들이었다. 그들이 설치한 번방(番坊)은 자체 선발된 번장(番長)에 의해 자치되었다. 그들은 광주, 천주, 양주 등에 6–7개의 모스크(mosque)를 건립했으며, 천주에는 아랍인공동묘지(Sirafi, 試那圍)가 조성되었다. 968–1168년의 약 100년 동안 아랍이 칼리프의 사절단을 중국에 파견한 것은 49회 였는데, 이는 2년에 1번씩 파견되었음을 의미한다. 송은 해상무역을 전담하는 관청으로 시박사(市舶司)를 971년부터 1145년까지 9곳에 설립하였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에서 송전(宋錢)이 광범위하게 통용되었다.

원(元, 1279–1368)은 세계정복활동을 해상에서도 펼치려고 하였다. 베트남(1285, 1287), 참파(1283), 미얀마(1287), 자바(1292–93)에 대해 해상 원정을 감행하였고, 그 결과 동남아시아 곳곳에 화인촌(華人村)이 건설되었다. 원은 국내에서도 시박사를 4곳이나 추가로 설치하였다. 당시 중국 선박 중에는 천 명을 태울 수 있는 큰 배가 있었으며, 1345년에 『동방견문록』을 저술한 마르코 폴로(Marco Polo)는 중국 선박을 타고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다. 중국인들은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이르는 해상무역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명(明, 1368–1644)은 건국된 지 3년 후인 1371년에 "연해민의 사적인 출해(出海)를 금지"하는 해금정책(海禁政策)을 실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해적 장사성(張士誠), 방국진(方國珍) 그리고 왜구와 연계하여 동남 연안지역에서 반란세력이 성장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조각의 널판지도 바다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고, "사적으로 두 대박이 해선을 건조하여 바다로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잡아 처벌하였다." 그러나 송·원대에 이미 상류층만을 위한 상품이 아닌 평민들의 생필품이 해상무역상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밀무역이 성행하였다. 특히 명

초기(1405–33)에는 세계적인 해상원정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영락제(永樂帝, 재위 1402–24)는 각국에 자국의 위력과 자애를 느끼게 하고, 중화주의를 따르게 하며, 조공체제를 강요하기 위해 정화(鄭和)에게 원정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1405–1433년의 기간 동안 7차에 걸쳐 정화는 대형 선박 62척을 포함한 총 200척의 선박과 27,000명의 원정대원으로 구성된 원정대를 이끌고 남중국–참파–자바–팔렘방–말라카–실론–고리–호르무즈–아덴–케냐에 이르는 15,000마일을 항해하였다. 이 원정은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가 포르투갈을 출항하여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 캘리컷(Calicut)에 도착한 1498년보다 약 100여년 빠른 대항해였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항해활동이 계속 이어진 것에 반해, 중국에서는 정화의 해상원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해 역사적 돌출사건이 되었으며 그리고 해금정책이 더 강하게 실시되었다.

3. 근대의 해양강국



▲ 대항해시대의 탐험 항로 (자료 : 조르주 뒤비, 채인택 옮김, 『지도로 보는 세계사』, 서울 : 생각의 나무, 2006, p. 64)

도시국가들의 해상중개무역 덕분에 동양의 산물에 익숙해 있던 유럽인들은 도시국가들의 중개무역 독점에 의한 동양 산물의 가격 상승, 이슬람세력의 팽창에 따른 중개무역의 어려움 증가, 도시국가들의 쇠퇴, 신흥 군주국들의 영토팽창 야욕 증가, 지리지식과 항해술의 발달 등에 의해 동양으로 가는 새로운 통상로를 개척하려고 노력하였다.

유럽에서 대항해와 대탐험과 같은 해상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주도한 것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다. 1415년부터 아프리카 동해안부터 모험적으로 항해하기 시작한 이 두 국가는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항해 목표지를 확대해 나갔다. 원주민을 완전히 무시한 채 도착하는 곳마다 자국의 영토라는 표시로 국기를 꽂았던 대항해국가들 덕분에 이 국가들은 많은 식민지를 가질 수 있었으며, 그 식민지들로부터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1494년 토르데실라스(Tordesilas)[9] 조약을 체결하여 세계를 반분할 정도로 강성했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다. "스페인은 그렇게 힘들게 획득한 정금을 생필품을 수입하기 위해 네덜란드인들에게 간단히 넘겨야만 했다. 멕시코와 페루의 광산이 스페인을 몰락시켰듯이, 브라질 광산은 포르투갈을 몰락시켰다. 모든 제조업은 비정상적으로 천대받았다. 따라서 오래지 않아 영국은 의류, 일용품, 공장생산품, 소금에 절인 고기, 곡물을 포르투갈에게 공급하게 되었다. 포르투갈은 처음에는 금과 은을, 다음에는 땅을 포기해버렸다. 결국 오포르토(Oporto)[10]의 포도밭은 브라질산 금을 받고 영국인에게 팔렸는데, 그 금은 포르투갈에 잠시 머문 후 영국으로 다시 흘러들어갔다.[11]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무역과 식민지에서 얻은 부를 국내산업의 발전에 투자하지 않았고, 그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키고 해군력을 강



▲ 스페인 무적함대의 영국 원정항로 (자료 : John Guilmartin, JR., Galleons and Galleys, London : Cassell & Co, 2002, p. 171)

9) 스페인과 포르투갈간의 유럽 대륙외 지역에 대한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로마 교황의 중재로 1494년 6월 7일 스페인의 토르데시야스에서 맺은 조약이다. 대서양 및 태평양 상에 새로운 분계선을 정한 기하학적 영토 분할 조약이며, 영토 분쟁을 평화롭게 마무리 지은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다.

10) 포르투갈의 제2도시로 문화와 상업을 통한 유럽의 도시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11)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지음, 김주식 옮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서울 : 책세상, 1999), pp. 104-105.

화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자체의 변화를 거부한 지배층의 한계 때문에 후발주자인 다른 국가들에게 곧 추월당해 버렸다.

대항해 시대는 인류의 역사에 많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첫째, 유럽 세계를 번영하게 하는 중심지역이 지중해에서 대양으로 그리고 중심국가도 지중해 연안국에서 대서양 연안국으로 바뀌었다. 둘째, 광대한 해외시장과 다량의 염가원료의 공급으로 "상업혁명(Commercial Revolution)"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자본주의의 발전과 "가격혁명(Price Revolution)"이 발생하였다. 셋째,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문명이 서로 영향을 주었으며, 인적 그리고 물적 교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지역사에서 세계사로 확대되었다. 넷째, 상업과 식민지를 위한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팽창경쟁이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섯째, 유럽의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유럽 이외 지역의 주민들이 노예로의 전락, 몰살, 굴욕적 조건 강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유럽 중심의 사고와 생활양식 혹은 서구 우월주의가 세계 각 국민들에게 널리 퍼졌다.

영국은 16세기부터 바다를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북아메리카의 버지니아와 남아메리카의 기니에 식민지를 건설한 롤리(Sir Walter Raleigh, 1552–1618)는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세계의 무역과 부를 지배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동서로 나누어 세계를 다 차지해버리고 남아있는 북쪽에는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같이 얼음으로 덮인 땅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영국은 스페인의 식민지나 무역선을 약탈하는 사략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략활동은 엘리자베스 여왕(Elizabeth, 1558–1603)의 치세기에 가장 활발하였다. 사략선 선장들은 정부로부터 재정과 인력을 비밀리에 지원받아 스페인 식민지를 약탈하여 노예와 보석 등을 그리고 무역선을 습격하여 무역상품을 강탈했으며, 영국은 그 때문에 엄청난 이

익을 보아 결국 강국이 되는 길을 밟을 수 있게 되었다.

스페인은 1588년 영국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응징하기 위해 무적함대를 출동시켰다.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Pelipe II, 1527–98)는 "나는 하느님의 바람과 파도가 아닌 사람들과 싸우라고 함정들을 보냈다"고 말했지만, "하느님이 숨을 쉬자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버렸다." 그는 패전 소식을 듣고서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번에 잃은 것만큼 큰 함대를 다시 바다에 내보낼 수 있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리네. 수원이 풍부하기만 하면, 물줄기가 가끔씩 막히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였다. 다른 스페인인들도 "폭풍우 때문에 가지가 부러진 것과 같다. 그러나 줄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가지가 다시 자랄 것이다"라고 자위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리 냉혹하였다.[12] 스페인은 무적함대가 패배한 후 잠시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얼마가지 않아서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해양강국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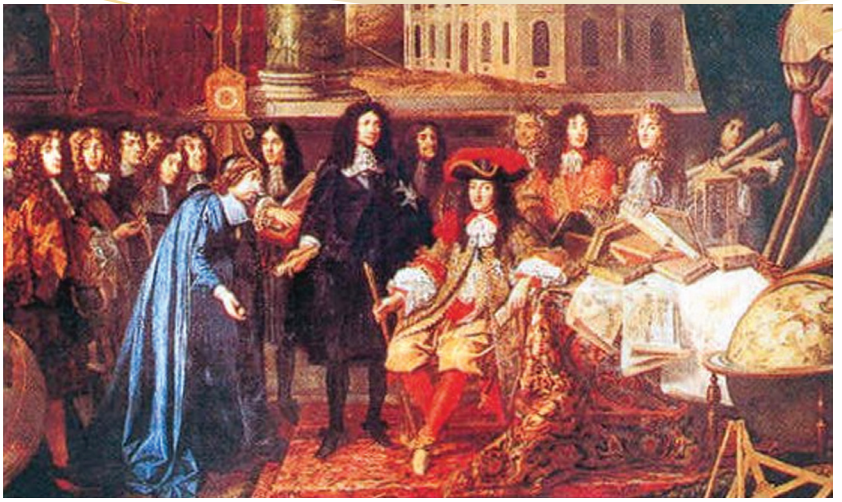


▲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와 영국함대의 해전도 (자료 : ed. Andrew Lambert, Ship : A History in Art & Photography, New York : Conway Publishing, 2010, p. 40)

영국이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면서 맞이한 두 번째 방해국가는 네덜란드였다. 1579년에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네덜란드는 17세기 전반기에 해운업과 해상무역으로 황금시대를 맞이하였다. 네덜란드는 영국이 제임스 1세(James I, 1566–1625)의 평화정책과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의 영국혁명 등으로 이완된 틈을 이용하여 다른 유럽 각국의 보유상선을 합한 것과 거의 같은 규모의 상선을 가지고 해상무역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7개 주가 각자의 함대와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을 일삼았다. 또한 네덜란드인들에게 애국심과 자유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한 상업정신이 있었지만, 상업적 귀족정치가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치를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반대하였다.[13] 영국은 뒤늦게 해운과 무역에 대한 강력한 보호정책으로 네덜란드에게 도전했으며, 그 결과 영란전쟁(1652–1674)이 발발하였다. 3차에 걸쳐 진행된 이 전쟁에서 영국은 최종적으로 승리했으며, 그리하여 네덜란드를 쇠퇴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당시 영국의 전쟁목적은 전쟁

12) Garrett Mattingly, The Defeat of the Spanish Armada(London : The Folio Society, 2002), pp. 376–380.

13)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지음, 김주식 옮김, 전게서, pp. 124–127.



▲ 콜베르와 루이 14세 (자료 : http://cafe.naver.com/rainbowcamp/140, 200. 6. 5)

초기 먼크(George Monck, 1608–70) 제독의 언급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건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네덜란드의 무역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다."[14]

세 번째로 등장한 영국의 방해국가는 프랑스였다. 166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과 해외진출에 무관심했으며, 경제구조의 허약함 때문에 해외시장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프랑스는 제3차 영란전쟁(1672–4)부터 트라팔가르(Trafalgar) 해전(1805)까지 영국의 해양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프랑스에서 바다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그리고 잘 인식한 것은 리슐리외(Armand Jean du Plessis de Richelieu, 1585–1642) 재상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유언을 남겼다. "바다는 모든 군주가 가장 많은 몫을 갖는다고 주장하지만 군주의 권리가 적게 나타나는 유산 중 하나이다. 바다에 대한 지배력이 잘 보장된 적은 없었다. … 이 유산을 주장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다를 통해 강력해지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국가에 대한 출입구를 제공합니다"라고 국왕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유언과 조언에 힘입은 콜베르(Jean Baptiste Colbert, 1619–83) 재무총감은 루이 14세(Louis XIV, 1638–1715) 치하에서 보호무역과 중상주

14) William Olover Stevens & Allan Wascott, 金一相 譯, 『西歐海戰史』(서울 : 淵鏡文化史, 1990), p. 159.

의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했으며, 해상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을 증강시켰다. 그는 해양강국들이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서 선박의 무제한 증가, 선박 구입자나 건조자 혹은 장거리 항해자에게 보너스 지급, 항구 실태의 조사, 항구와 선박의 종사자수 증대, 수상교통의 장려, 동방과 북유럽과의 해상무역 그리고 동인도회사와 서인도회사에 대한 강력한 지원, 모든 신분에게 투자기회 개방 등을 건의하였다.[15] 이러한 건의는 경쟁국인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와 대적할 수 있는 해군의 건설, 네덜란드로부터 국제 해상무역권을 빼앗기 위한 상선단의 건설, 상업회사의 창설, 식민지의 확장을 목표로 한 대구상(des grands desseins)에서 비롯되었다.[16] 그 결과 프랑스는 1683년에 대양에서 어떤 해양강국과도 견줄 수 있는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그가 사망하자 대륙중심정책으로 돌아섰으며, 해군도 빠른 속도로 약화되었다. 심지어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선박과 통상 그리고 식민지가 없이 사는 생활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17]고 호언하던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1769–1821)도 트라팔가르 해전의 패배 이후 바다에 대해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다.

이처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를 차례로 극복한 영국은 19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영국은 바다를 중시하고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 약 3세기 동안 부단히 노력한 결과 19세기에 세계의 중심이 되었으며, 바로 그 때 영어와 영국식 제도를 전 세계에 전파하여 문자 그대로 명실상부한 대영제국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1901년에 프랑스 해군장관이었던 라네쌍(J. I. de Lanessan)의 다음과 같은 서술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15) Mémoire sur le commerce, premier conseil de commerce par le Roi, dimanche 3 août 1664, éd. Pierre Clément, Lettres, Instructions et Mémoires de Colbert, Vol. II(Paris : Imprimerie Nationale, 1861–1882), 1ère partie, pp. cclxii–cclxxii.

16) Charles Woolsey Cole, Colbert and a Century of French Mercantilism(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1939), vol. I, p. 473.

17) William Olover Stevens & Allan Wascott, 金一相 譯, 『西歐海戰史』(서울 : 淵鏡文化史, 1990), p. 190.

루이 14세 치하 말기부터 영국은 세계 제일의 상업국이자 해운국이 되었다. 우리의 식민지들이 영국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수천 척이나 되는 영국 상선들이 지구를 마음대로 돌아다녔으며, 영국 함대는 우리 함대를 항내에 가둬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한 개인의 야심 특히 특권층의 이익과 격세유전적인 정세가 통치자의 가슴 속에 파고들어 감으로써 지독하게도 운이 없는 모험을 대륙에서 하기 위해 바다의 운명에 대해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영국해군은 트라팔가르 해전의 승리를 발판으로 영국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영국해군은 식민지 쟁탈전과 중상주의 정책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인 제해권 쟁탈에서 사실상 영국을 승리국으로 만들고 다른 국가들을 패배국으로 만들었는데, 무적함대와 영국함대의 충돌로 시작된 한 시대는 이렇게 해서 막을 내리게 되었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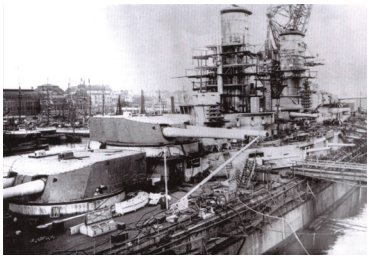
▲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모항인 스카파 플로우에서 출항하는 영국 대함대 (자료 : http://en.wikipedia.org/wiki/File:Grand_Fleet_sails.jpg)

사람들은 이제 바다가 장벽이 아니며, 전·평시를 막론하고 대륙이나 국가 간의 거대한 교통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19세기 말부터 양차 세계대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양강국으로 등장한 나라는 독일,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이다. 물론 중국과 인도 등 해양

18) J. I Lanessan, Le Programme Maritime de 1900–1906(Paris, 1903).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2), pp. 1–2에서 재인용.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라들도 있지만, 앞의 4개국에 비하면 해양강국으로 불리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인다.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대륙지향성이 강했던 독일은 빌헬름 2세(Wilhelm II, 1859–1941)의 치하 때 바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마한(Alfred Thayer Mahan, 1840–1914)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1890)』을 탐독하고 이를 독일 해군에 널리 배포한 그는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고 선언하였다.[19] 독일은 1893년부터 상선 보유수를 증가시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척수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대외 교역량도 프랑스와 미국을 능가하여 영국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독일 해군은 1900년 해군조례 서문에서 "독일의 해상무역과 식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 가장 강력한 함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독일은 건함경쟁(建艦競爭)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1939–45)을 일으켰는데, 제1차 세계대전(1914–8)과 마찬가지로 패배하였다. 패전국은 응당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국제관례이지만, 독일이 치러야 할 대가는 가혹할 정도였다. 독일의 위정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해군지향성보다 육군지향성을 추종한 대가이기도 했다.



▲ 드레드노트급 독일 전함 쾨니히호의 건조 장면 (자료 : http://blog.naver.com/greatwar1/110037341833)

러시아의 해양지향정책은 표트르 대제(Peter the Great, 1672–1725)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강력한 함대와 부동항의 확보에 대한 열정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는 북방전쟁(1700–21)에서 승리하여 발트해 동남해안을 영유한 후, 그곳을 서방으로 진출하는 근거지로 삼았다. 뒤를 이은 예카테리나 2세(Ekaterina II, 1729–96)는 터키와의 전쟁 끝에 흑해와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미국과 견줄 수 있을 만큼 해양강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이다. 1956년부터 30여 년간 소련 해군참모총장이었던

19) Philip A. Crowl, "Alfred Thayer Mahan : the Naval Historian," in ed. Peter Paret, Makers of Modern Strategy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1), p. 473에서 재인용.

고르쉬코프(Sergei Gorshkov, 1910–85)는 지상군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정치가와 군 수뇌부를 설득시켜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 해군에 버금가는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미국과 더불어 초해양강대국(super maritime power)의 지위에 있던 소련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소련의 몰락으로 러시아가 되었는데, 러시아는 옛 소련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아직까지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인도에 온 포르투갈인들은 1511년에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지점인 말라카를 점령해 버렸다. 그들은 그곳에서 만난 중국인들을 따라 항해하여 1513년에 중국 광동 해안에 도착하였다. 1560년대 초에 이르자, 밀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던 마카오에는 포르투갈인 900명이 거주하게 되었다. 특히 1522–1566년(가정연간)에 왜구들의 침구가 잦아지자, 명은 중일무역을 엄금했으며, 그 와중에 포르투갈인들은 마카오와 나가사키 사이의 무역을 장악하였다. 이제 유럽인이 아시아 해상무역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사실상 서세동점(西勢東漸)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스페인 사람들은 1571년에 필리핀의 루손 섬을 점령하였으며, 그 후 중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아메리카 대륙과의 중개무역을 하였다. 이 무역에 종사한 무역선은 1573년에 8척이었지만, 1600년대에는 50척으로 증가하였다. 사실상 포르투갈의 해상무역로 외에 스페인–멕시코–필리핀–중국을 잇는 해상교역로가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개척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인들은 1595년에 자바에 처음으로 도착했다가 1598년에는 중국 연안까지 도착했으며, 1602년에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였고, 1619년에는 자카르타에 식민도시를 건설하였다. 1622년에는 마카오를 공격하여 실패한 후 팽호도를 점령했으며, 1624년에는 팽호도를 양보하고 그 대가로 대만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661년에 연해민이 정성공(鄭成功)과 연계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로 천계령(遷界令)이 반포되자, 정성공은 네덜란드인들로부터 대만을 빼앗아 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망을 구축하였다. 반면에 네덜란드의 해상무역은 중국 본토에 거점이 없는 상황

에서 자카르타를 거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발달할 수 없었다.

영국 사절단이 중국에 처음 온 것은 1793년이었는데, 물론 영국의 통상교류요구는 청국에 의해 거절되었다. 1664년에 처음 영국에 전해진 차가 100년 만에 영국민의 음료가 되었으며, 이후 갈수록 증가하는 차 수입 때문에 영국의 무역적자가 커져갔다. 영국은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벵갈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편을 청에 밀수출했으며, 그 때문에 청국에서는 아편이 국민 건강과 국가 기강을 해치는 독소일 뿐 아니라 막대한 은의 유출을 유발하여 국제무역수지의 역전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국 수군은 "해구(海口)를 지키고, 사무역(私貿易)을 감시하며, 해적을 잡는" 역할만 하였다. 1797년에는 연해의 전함을 모두 소형으로 개조하였으며, 1척당 승조원을 20명 이내로 규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소형이 되어버린 청국의 목제 함선은 아편전쟁(1차 1840-42, 2차 1856-60)때 서양의 대형 철선을 당해낼 수 없었다.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아편무역 승인, 영토 할양, 개항, 관세특혜, 기독교 포교 승인 등 불평등조약을 청에게 강요함으로써 청을 반(半)식민지로 만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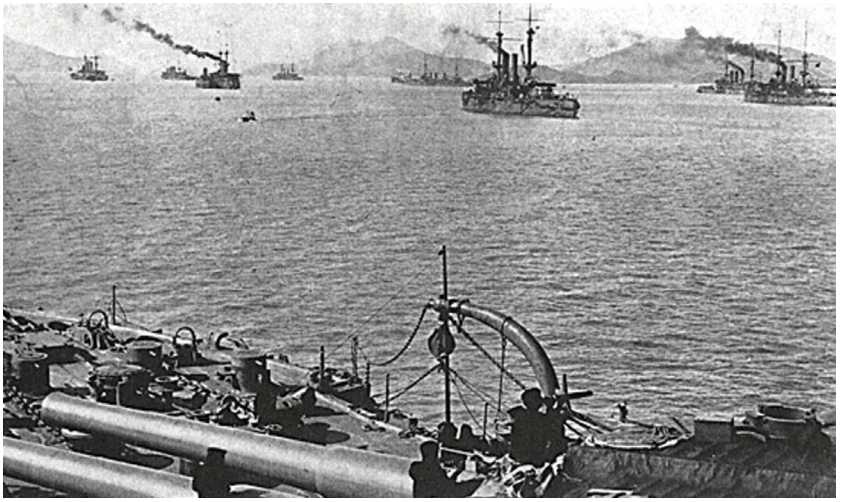
아편전쟁 이후 100년 동안 서구 열강들은 중국에 대한 해상 침입을 84회 실시했는데, 동원된 함정은 1,860척이었고, 침입병력은 49만명에 이르렀다. 또한 근대에 이르러서는 아시아의 해상교역이 유럽인의 수중으로 완전히 넘어가버렸다. 아시아에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력을 갖기 위해 처음 시도한 것은 근세 말기에 해당하는 19세기 후반에 근대화와 서구화에 눈을 뜬 일본이었다.



▲ 아편전쟁 (자료 : http://cafe.naver.com/ssuchinese.14210, 2009. 4. 10

4. 현대의 해양강국

일본은 메이지(明治)유신(1867–8) 이후에야 해양강국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일본은 조선통신사 일행뿐 아니라 그들이 타고 온 선박을 보고 놀라 경외심을 가질 정도로 보잘 것 없는 문화와 허약한 국가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해양활동은 흔히 '왜구'로 불리는 해적활동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일본은 극동 3국(청·조선·일본) 중에서 서구문화를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거의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은 극동지방에서 러시아를 견제할 대리국으로 일본을 택한 영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 결과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서구식 경제와 군사제도를 완성한 일본은 청일전쟁(1894–5)과 러일전쟁(1904–5)에서 연거푸 승리했으며, 나아가 영국과 동맹을 체결하여 명실상부한 극동의 패권국이 되었다. 특히 일본의 연합함대에 의한 러시아 발트함대의 격파는 일본을 해양강국으로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열강으로 대접받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태평양전쟁(1941–5)을 일으키기 직전, 일본 해군은 일본 열도의 주변에서 동남아에 이르는 해역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일본은 진주



▲ 쓰시마 해전 직전 출전 대기 중인 일본 연합함대 (자료 : 『日露戰爭』, 歷史群像ミリーズ25号, 東京 : 學習研究社, 2004, p. 29)

만 기습을 시작으로 태평양에서 미국과 전면전을 수행하다가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그러나 일본이 이 전쟁에서 보여준 저력과 활약상 그리고 미국과 전면전을 한 유일무이한 국가라는 점 때문에 미국인은 일본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일본은 6·25전쟁을 계기로 다시 해양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미국에서 친일적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한 미국인의 경외심이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독립전쟁(1775–83) 이후 신생국으로서 내부문제와 광대한 서부 개척에 여념이 없어 바다에 눈을 돌리지 못했다. 그 예로 1775년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1799)이 창설한 대륙해군(Continental Navy)은 많은 예산만 사용한다는 이유로 1783년에 폐지되어 버렸다. 미국의 해양에 대한 관심은 서부와 남부로의 팽창활동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19세기 말 마한의 저서 덕분에 일어났다. 대영제국의 사례를 들어 카리브 해, 태평양, 대서양이 미국의 국익과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특히 파나마 운하의 개통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해양강국이 된 것은 양차 세계대전을 수행한 이후였다. 미국은 1945년 이후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퇴진하면서 남긴 공백을 착실하게 메워나갔다. 일단 세계 제일의 국가가 된 이상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자국의 영토나 서반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과거의 영국처럼 이제는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프런티어"를 설정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서게 되었다. "미국의 평화시대(Pax Americana)"가 무르익었던 것이다.[20] 오늘날에는 미국이 세계 최대이자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유일한 초대형 해양강국(super maritime power)이 되었고, 세계의 해양경찰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지위는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20) 폴 케네디, 李日洙·全南錫·黃建 共譯, 『강대국의 흥망』,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1988, pp. 486–487.



▲ 세계 최강 미국 함대의 모습 (자료 : http://blog.naver.com/junhu12/20117653277, 2010. 11. 17)

중국은 모택동(毛澤東, 1893–1976)이 사망하고 등소평(鄧小平, 1904–97)이 권력을 장악한 1980년부터 해양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연해안 지방을 경제특구와 개방지구로 선정하고 또한 경제개혁을 감행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군사력과 외교력의 강화에도 성공하였고, 그 결과 세계적인 해양활동의 주역이 유럽인에서 중국인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 중국 해군의 해상 강습 훈련 (자료 : 中國海軍政治部宣傳部 編, 『中國 海軍』, 北京 : 海潮出版社, 1999, p. 51)

Ⅲ

우리나라의 해양사

1. 고대 : 삼국시대까지
2. 고대 : 남북조시대
3. 고려
4. 조선





Ⅲ. 우리나라의 해양사

Ⅲ. 우리나라의 해양사

1. 고대 : 삼국시대까지



▲ 울산 반구대 암각화

발굴된 고대 자료에 따르면, 선사시대부터 산동반도 그리고 요동반도와 한반도 서해안 사이에 연안항해가 실시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傳). 일본 구주의 토호들이 한나라 군현을 통해 조공을

빈번하게 했다는 기록들로 볼 때, 왜인들이 한반도 서해연안을 거쳐 중국을 오고간 것으로 생각된다. 마한(馬韓) 주민들이 "배를 타고 왕래하면서 한나라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는 기록이나 여러 국가에서 사람들이 철을 구입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의 변진(弁辰)으로 왔다는 기록을 통해 볼 때, 남한과 다도해를 중심으로 활발한 해상무역이 고대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기원전 37–기원후 668)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정책에 의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과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바다를 통하여 남조(南朝)와 교섭하였다. 그 예로 고구려와 오의 사신 왕래가 508–548년에는 11회(『梁書』) 그리고 561–585년에는 5회가 이루어졌다(『陳書』). 고구려가 산동반도의 지배국이었던 북위(北魏)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양자강 하구의 오(吳)와 교섭한 것은 중국 남조의 여러 나라와 해상교섭을 할 수 있는 항해술적 여건을 보유하였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해양사적 의의가 크다. 또한 516–668년에 고구려 사신의 방일 회수가 20회(『日本書紀』)였던 것으로 보아, 고구려는 일본과도 교섭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백제가 출현하기 전에는 고구려가 남해 제주도까지 세력을 뻗쳤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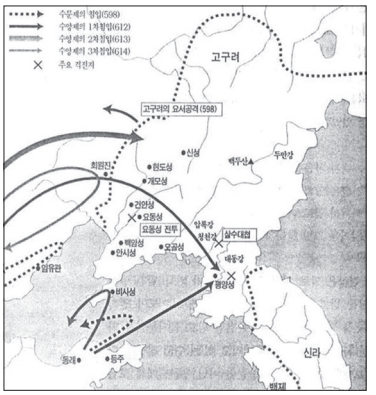
고구려는 3세기 초부터 수군을 보유하였다.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은 391년 바다를 통해 백제를 공격했으며, 396년에는 수군으로 백제의 배후를 쳤다.

4세기 말 5세기 초 고구려 수군의 활동은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해상공격작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고구려 수군은 대체로 허약했으며, 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외세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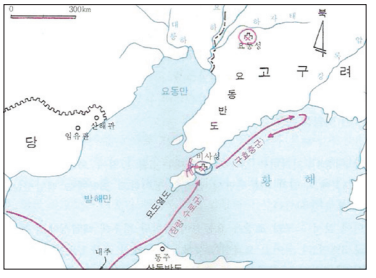
598년 수(隋)의 1차 고구려 침략 때 수군 6천 명이 동원되었으며, 612년 2차 침략 때에는 수군이 전함 300척과 장병 4만 여명으로 편성되었고, 이후 612년의 제3차와 614년의 제4차 침략 때에도 수군이 동원되었다. 645년에 실시된 당(唐)의 1차 고구려 침공 때에는 전함 5백 척과 수



▲ 삼한시대 각국의 영역 (자료 : http://cafe.naver .com/sonsfather/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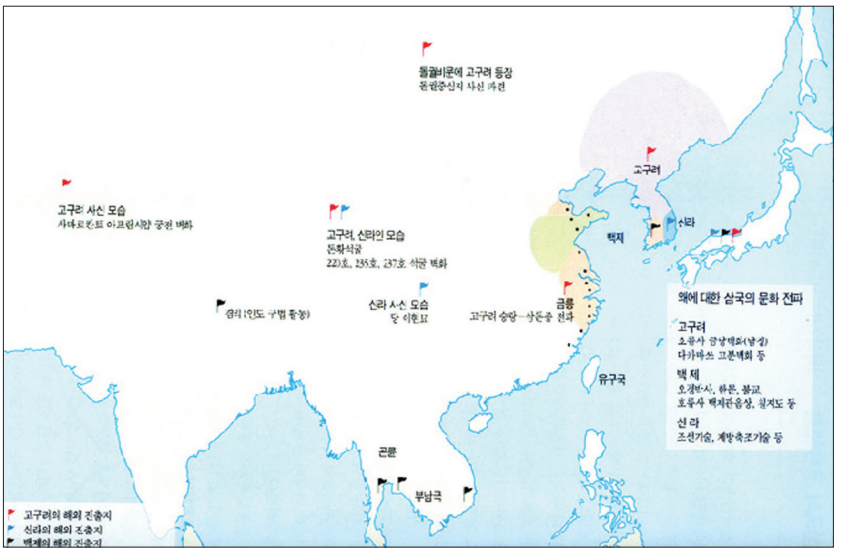


▲ 수의 고구려 침략도 (자료 :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 고구려와 당의 비사성 전투 (자료 :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高句麗 對隋 · 唐戰爭史』, 民族戰亂史8, 1991, p. 115)

군 4만3천명으로 편성된 수군이, 647년의 2차 침공 때에는 1만여 명의 수군이, 648년의 제3차 침공 때에는 3만여 명의 수군이, 그리고 666년의 제4차 침공 때에도 수군을 동원하였다. 수와 당은 고구려를 침공할 때 수군에게 병력과 군수물자의 수송 임무를 주로 부여하였다. 때로는 수륙합공의 계획을 세웠으나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668년에 이루어진 제5차 침공은 신라군과 연합작전을 감행하여 성공하였다. 고구려는 이처럼 70여 년간의 외세 침입에 맞서다가 결국 패배하여 멸망하고 말았다. 고구려가 수와 당의 대병력을 오랫동안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요동 지역의 강력한 요새들에서 용감하게 맞선 지상군 덕분이었을 뿐, 고구려 수군의 활동은 기록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고구려는 수군을 강력하게 발전시켜 침공군의 수군을 바다에서 막았더라면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다.



▲ 삼국의 해외진출 상황도 (자료 : http://cafe.naver.com/ngwangfa/182, 2007. 11. 30)

백제(기원전 18–기원후 660)는 "백가(百家)가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여 나라 이름을 백제라 했다"(『隋書』)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건국 초기부터 해상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 기록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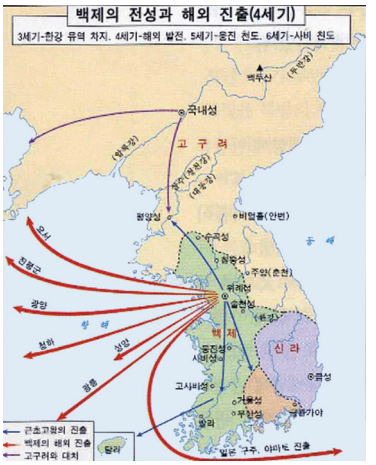
백제가 4세기 후반부터 해상을 통해 해외 교섭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76년에는 처음 조공을 보내온 탐라를 예속국으로 만들었다.

백제가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한 것도 역시 372년부터였다. 백제는 남중국의 동진(東晋), 양(梁), 진(陳), 수, 당과 교류했으며, 북중국의 북위와도 교류하였다. 또한 비록 우리나라의 사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요서경략설(遼西經略說)에 따르면, 백제는 전성기인 근초고왕 치세 때 요하 서쪽 지방을 일정기간동안 점유하였던 것 같다. 백제가 요서(遼西)와 진평(晉平) 2개 군을 설치했으며, 346년에 부여가 백제를 침공한 사실과 490년에 북위와 백제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사실 등은 이 요서경략설을 뒷받침하고 있다(『宋書』, 『梁書』, 『南齊書』, 『通典』, 『梁職貢圖』, 『三國史記』, 『資治通鑑』). 요서경략은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해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백제의 해상활동이 얼마나 활발했고 또한 백제 수군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백제는 근초고왕(近肖古王)의 치세인 372년부터 왜국과 교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유교 경전과 한문(阿直岐와 王仁), 역법과 불교, 직조와 의약기술 등 백제에서 대량으로 유입된 각종 문물과 기술은 왜국의 고대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여 아스카(飛鳥) 시대(592-710)를 출현시켰다. 신라군과 당군의 연합군이 수륙합공으로 백제를 멸망시키자, 왜국은 662년에 170척의 함선과 군사 5천 명을 파견하여 백제부흥군을 도왔으나, 663년 백촌강(白村江) 해전에서 패배하였다. 백제는 활발한 해상활동을 하면서 강력한 해양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해양력을 집중시켜 외적의 침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멸망하고 말았다.

신라(기원전 57-기원후 935)는 건국 초기부터 해양을 통해 왜국 그리고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국가 발전도 해양진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의 견제를 받아 중국과 교류하기 어려웠던 신라는 521년에 처음으로 해상을 통해 중국(梁)에 사신을 보낼



▲ 백제의 해외진출 상황 (자료 : http://blog.naver.com/payo20/60054997709, 2008. 9. 8)



▲ 신라와 당의 전쟁 (http://cafe.naver.com/yiosan6/6)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때 신라의 사신들은 백제 사신선에 편승하여 중국에 갔으며, 신라가 독자적으로 해상을 통해 중국에 사신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564년이다(北齊). 이것은 신라가 552년에 한강 하류지역을 백제로부터 빼앗아 당은포(唐恩浦)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에 비해 신라와 왜국과의 해상교류는 일찍부터 있어 왔다. 석탈해(昔脫解)와 호공(瓠公)이 왜국에서 신라로 왔으며,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嗚尊)와 연오랑(延烏郎)과 세오녀(細烏女), 아메노히보코(天日槍) 등이 신라에서 왜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5세기 말까지 왜는 신라를 32회 침입하였는데, 침입은 주로 3세기 이후에 실시되었다. 이러한 침구활동에 많은 피해를 본 신라는 295년에 백제와 연합하여 왜국을 정벌하려 했으나 수전에 익숙하지 않다는 반대의견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왜인의 침입 때문에 3세기부터 수군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수군진의 설치와 수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신라는 512년에 우산국(于山國)을 정벌하였으며, 583년에는 선박은 물론 수군과 어업 등 바다 관련 총괄기관으로 선부서(船府署, 583)를 설치할 수 있었다.

삼국통일전쟁 기간에도 수군의 역할이 매우 컸다. 660년에 백제와의 전쟁에 파병되는 당군을 맞이하기 위해 병선 100척이 덕물도(德物島)로 출정했으며, 668년 평양전투 때에는 신라 수군이 당군 휘하에서 활약하였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군을 한반도에서 격퇴시키는 데에도 신라 수군의 기여도가 적지 않았다. 671년에 당 조운선 70여척을 격파하고 군사 100여명을 사로잡았다. 673년에는 당군의 침입에 대비하고 서해를 방어하기 위해 병선 100척을 배치하였다. 675년에는 천성(泉城) 해전에서 당군 1,400명을 참수하고, 병선 40척을 격파하였다. 676년에는 기벌포(伎伐浦)에서 22회나 전투하여 당군 4,000명을 전사시켰다. 신라가 이처럼 삼국을 통일하고 당군을 축출한 것은 신라가 삼면에 바다를 가진 명실상부한 해양국의 면모를 갖추고 또한 연안무역과 해외무역의 발

달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해양사적 의미를 갖는다.

가야(기원 전후–562)는 일본 규슈와 가까워 일찍부터 해상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수군도 일찍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탈해가 완하국(琓夏國)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 가야를 침입하자, 수로왕(首露王)은 500척의 함선을 동원하여 격퇴시켰다. 수로왕은 허황옥(許黃玉) 일행(35명)이 탄 아유타국(阿踰陀國)의 큰 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479년에 남제에 조공한 사실로 볼 때, 가야는 중국 남조와도 해상교류를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가야는 신라와 수륙 두 방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아니라 연합국 형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각개격파당하여 멸망하고 말았다.

2. 고대 : 남북조시대(통일신라와 발해)

남북조시대를 맞이하자 신라는 678년에 선부(船府)를 독립행정기구로 설치하여 선박관련 업무를 병부산하 선부서에서 이양 받아 전담하게 하였다. 선부는 그 후 명칭이 바뀌었다가(利濟府) 다시 원명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선부는 당시 해양국이었던 일본에도 없었던 것으로서 신라만 보유하였던 제도였으며, 병선·무역선·어선을 비롯하여 모든 선박의 건조와 관리, 수병과 선원의 관리와 양성, 항해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오늘날 해양수산부와 해군을 합친 기구와 같았다.

그러나 왜구의 침구활동은 계속되었다. 731년에는 일본 병선 300척이 침입했는데, 이처럼 전례 없는 대규모 침입을 격파한 것이 신라 수군력이었다. 786년에는 왜가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를 침략하려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는데, 이 계획은 신라 수군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신라 수군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



▲ 남북조 시대의 무역로 (자료 : http://cafe.naver.com/dolnoja/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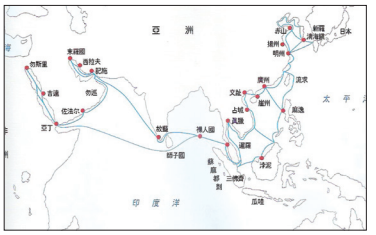
준다. 장구진(長口鎭)·당성진(唐城鎭)·혈구진(穴口鎭) 같은 수군진을 설치했으며, 해관(海官)이나 진두(鎭頭)로 불리는 진장이 있었고, 후백제의 견훤(甄萱)이 원래 서남해 방수(防戍)였다는 사실은 신라의 연안 방비태세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부터 혜공왕까지 약 100년 동안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특히 발해(渤海)의 발흥으로 당(唐)과 신라가 서로를 다시 필요로 하게 되자 양국의 조공무역이 발전하게 되었다. 물론 양국의 교류는 발해 때문에 해상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신라는 왜와도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는데, 668년부터 808년까지 140여 년 동안 신라는 45회 그리고 일본은 31회에 걸쳐 상대국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신라는 통일 직후 일본에 대해 군사적 방비를 강화하면서 평화로운 외교정책을 동시에 구사하였던 것이다.

신라에서는 중대 말기부터 내란이 발생하였다. 혜공왕부터 정강왕까지 약 120여 년 동안 25회의 내란이 발생했으며, 하대에 이르러서는 지배층의 권력독점과 사치생활이 훨씬 더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왕족 간의 권력투쟁으로 중앙정권이 약화된 틈을 타 지방에서 도적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세 하에 8세기부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해양을 통한 사무역이 활발해졌다. 당에서는 이러한 사무역의 추세를 관리하기 위해 8세기 전반기에 시박사(市舶司)를 설치하였다. 일본에서는 신라 상인이 가져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불했으며(768), 태정관부(太政官府)가 사무역의 단속을 건의하기까지 하였다(828). 신라에서는 사무역으로 경제력을 확보한 정치세력의 출현으로 후삼국시대의 여건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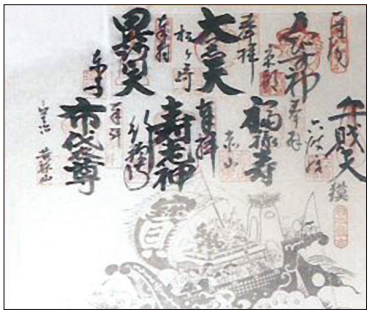
동북아 삼국의 사무역이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장보고 시대이다. 서남해의 한 섬(莞島)에서 태어난 장보고는 9세기 초에 도당하여 입대했으며, 군공을 세워 서주의 무령군소장(武寧軍小將)의 직위에 올랐다. 그는 828년에 귀국하여 흥덕왕을 알현하고서 1만 명을 거느리고 청해진(淸海

鎭)이라는 수군진을 설치하고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가 되었다. 그는 서남해는 물론 신라 연안의 해적을 소탕하여 신라인이 당에서 약매(掠賣)되는 현상을 근절시켰으며, 제해권 확보와 청해진을 근거로 해상무역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중국 연안에 무리지어 살고 있던 신라교민들(新羅坊·新羅所)을 이용하여 대당매물사(大唐賣物使)라는 교역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그가 파견한 선박은 교관선(交關船)으로 불렸다. 당의 주요 무역기지는 산동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적산포(赤山浦)였으며, 그곳에는 장보고가 세운 사찰인 법화원(法華院)도 있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회역사(回易使)라 불리는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였다.



▲ 9세기 아시아의 해상무역로 (자료 : 『해상왕 장보고 유적 · 유물도록』, 서울 :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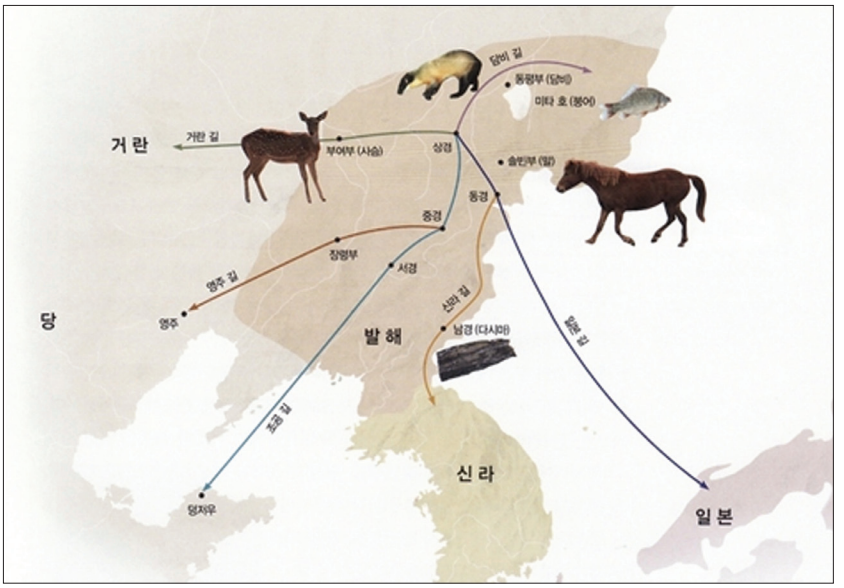
그러나 장보고는 정쟁에 휘말려 반대세력에 의해 암살되었으며(841년 혹은 846년), 청해진은 851년에 폐지되었고 그 주민들도 김제 벽골군(碧骨郡)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장보고가 귀국하여 활약한 기간은 14–18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해상질서를 확립하였고, 삼국 중개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남중국을 종착지로 한 해상실크로드를 북중국과 한반도 및 일본 열도까지 이었으며, 우리 민족의 해양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대를 만들었다. 오늘날 중국인들은 적산 법화원터 주변에 장보고 기념관과 장보고 동상을 건립했으며, 일본인들은 사당을 세워 장보고를 재물신으로 받들고 나아가 그의 부적을 만들기도 한다. 서양학자(Edwin O. Reischauer)는 장보고를 해양상업제국의 상인군주로, 우리는 해상왕으로 부르고 있다.



▲ 일본 경도의 적산선원에 걸려있는 재물신 부적. 장보고의 무역선과 돛에 保가 아닌 寶자가 씌여 있다 (자료 : 필자가 2003년에 촬영)

698년에 건국된 발해는 조선시대의 6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부(信部) 산하에 수부(水部)를 설치하여 선박업무를 전담하게 했으며, 압록강 하구의 신주·포시에트 만·함경도 북청에 해당하는 토호포(吐號浦) 등에 수군진을 설치하였다. 발해 수군은 732년에 산동반도에 있는 당의 주요 무역항 등주(登州)를 공격하여 잠시 점령하였다가 물러났다. 733년에는 발해군이 해로로 이동하여 요서 지방의 마도산(馬都山)을 공격하였다. 발해가 해동성국(海東盛國)이 된 8세기 말부터는 당과 신라와의 적대적인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로 변했으며, 실제로 산동반도 등주에 발해사신을 접대하는 발해관(渤海館)이 건립되었다. 발해는 압록강 하구의 신주(神州)를 기지로 삼아 765–819년의 50여년 동안 산동반도의 세력가였던 이정기(李正己) 일가와 해상무역을 했으며, 그 이후에도 발해의 교관선들이 산동반도를 많이 왕래하였다. 일본과 국교를 맺은 727년부터는 일본과도 교류를 활발하게 했다. 발해는 929년까지 35회에 걸쳐 함경도 북청(北淸)과 연해주의 포시에트(Posiet) 만을 기지로 삼아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발해인들이 포시에트 만에서 일본열도까지 500해리를 약 1주일 만에 항해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원거리 대양항해를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에 속한다.



▲ 발해의 특산물과 무역로 (자료 : http://cafe.naver.com/history season1/107, 2007. 11. 8)

45년간 지속된 후삼국시대(892–936)에도 해양활동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신라는 923–935년까지 13년 동안 7회에 걸쳐 후당(後唐)에 사신을 파견했으며, 후량(後梁)에도 사신을 파견하였다. 등주에는 신라관(新羅館)이 계속 유지되고 운영되었다. 신라는 오(吳)·민(閩)·오월(吳越) 같은 남

중국은 물론 북으로 거란(契丹)에도 사신을 보냄으로써 해상교류활동을 하였다. 국내외 정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중국에서 남중국까지 해양교류를 하려 한 것은 전성기 신라의 여력이 아직 남아 있었음을 의미한다.

후백제는 태봉–고려의 방해 때문에 주로 남중국과 해양교류활동을 하였다. 예를 들면, 후백제는 오월국에 사신을 4회 보냈으며, 오월국은 후백제에 3회 보냈다. 888년부터 924년까지 37년 동안 승려들이 해양을 통해 한반도와 중국을 오고 간 경우가 14회인데, 무주·전주·나주 등 대부분 후백제의 항포구를 이용하였다. 후백제는 거란과도 교류를 했으며, 일본과도 교류하려고 사신을 2회나 보냈다. 이러한 기록들로 볼 때, 후백제는 조공무역과 사무역을 동시에 활발하게 전개했다고 할 수 있다.

고려는 925년부터 946년까지 13회에 걸쳐 후당과 후진(後晋)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민간상선들도 중국을 많이 왕래하였다. 고려는 오, 남당(南唐), 오월, 민과 같은 남중국 국가들과도 통공하고 무역을 하였다. 일본에는 2회(937·939)에 걸쳐 국교 수교를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다. 고려는 후백제와 나주지방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를 하였는데, 결전은 909년에 영산강 하류에서 벌어진 덕진포(德津浦) 해전이었다. 청해진이 혁파된 후 새로운 무역중심지로 대두한 예성항(禮成港)을 중심으로 성장한 왕건(王建)은 서남해 해상세력의 도움을 받아 이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후백제를 멸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어 신라까지 멸망시키고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신라의 번영 기반이었던 왕성한 해상활동은 후삼국시대에도 계속 이어졌는데, 제해권을 장악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3. 고려



▲ 항해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는 고려 동경 (자료 : 『한반도와 바다』, 국립민속박물관 · 해상왕장보고기념관, 2004, p. 042)

고려(918–1392)는 건국과정에서 세운 전공 때문에 수군을 상당히 강력한 규모로 유지했던 것 같다. 『고려사』에서 해노(海弩)와 선두(船頭)에 대한 물건 하사(1018), 수전에 출진한 천인에 대한 노비신분 면제(987), 압록강 하구 수군진에서 홍수에 의한 병선 70여 척의 유실(1039), 맹해군(猛海軍)의 선발(1047) 등의 기술들은 고려 수군의 존재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해군의 임무는 해안경비를 강화하여 동여진족의 침략을 막거나 격퇴하기 위한 것이었다.

진명(鎭溟)을 둘러싼 동여진과 고려의 각축(1009·1011·1016), 동해 연안에 축성(1011–12), 울릉도를 둘러싼 각축(1018–09·1141·1157)은 고려의 여진족 대비책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주요 수단은 수군이었다. 오늘날 영흥(永興)에 해당하는 화주(和州) 인근지역을 근거로 한 여진족은 1019년에 일본으로 도항하여 도이(刀伊)의 난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고려 수군은 동해안 요지 5개소에 함선(艦舟) 1,000여 척을 배치하여 그들을 요격하려 하였다. 여진족의 해적활동은 금(金)이 건국되고서야 사라졌다.

고려는 조세수입을 증대시켜 국가 재정을 견고히 하기 위해 조운(漕運) 제도를 발전시켰다. 국초에 12개의 조창(漕倉)을 설치하였는데, 2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창은 남해 3도의 해안가였다. 그러나 1044년 예성강에서 병선 180척으로 군수물자를 수송한 사실로 볼 때, 연안해방(沿岸海防)의 여러 진영에 군량과 군수물자를 보급한 것은 수군 병선들이었다.

고려는 오월, 후당, 후진, 후주와 같은 오대의 여러 국가들과 사신무역을 하였지만, 송(宋)이 건국되자 송과만 교류하였다. 고려 초 70년간(962–1031) 견송사가 26회 파견되었으며, 송도 같은 기간에 10회에 걸쳐 사신을 고려에 파견하였다. 현종(1009–1031) 치세에는 요(遼)의 성장으로 사신왕래가 줄었고, 그 대신 상인들의 왕래가 증가하였다. 송상(宋商)의 도래는 문종(1046–83) 치세에 40여회나 되었다. 중국 상인들 속에는 남중국 사람이 많았는데, 아라비아 상인들의 도래도 한번에 100명이나 올 정도로 많았다.

특히 1071년 이후 40년 동안은 송상의 도래횟수 증가로 사절파견이 불필요해지기도 하였다. 실제로 송상은 270년간(1009–1278) 120회에 걸쳐 약 5천명이 도래하였다. 따라서 고려는 무역시대로 불린다. 그러나 신라시대와는 달리, 무역의 주체는 고려인이 아닌 송상과 아랍상이었다.

일본과의 관계는 11세기까지 보잘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11세기 후반기부터 일본인의 도래기록이 갑자기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일본이 고려와 송의 무역재개 사실을 알고 표류민 송환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고려와 무역을 하려고 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려와 일본은 공적인 교류가 아니라 주로 사무역을 통해 교류를 하고 있었다.

몽고군의 침입기간(1231–1273)은 고려 수군의 전성기였다. 당시 최씨 일가의 무인정권시대였던 고려는 몽고군의 횡포가 극에 달하자 1231년 철도(鐵島)와 신도(薪島) 사례를 참고하여 수전에 대한 몽고군의 취약성을 확신하고서 1232년에 해도입보책(海島入保策)[21]을 택하여 강화로 천도하였다. 다시 침략해 온 몽고군은 강화에 침입하지 못하고 고려인들에게 육지로 나오기를 요구했으나, 고려는 응하지 않았다. 몽고군은 그 분풀이로 전국을 4년간 유린하였다. 1257년에 최씨 정권이 와해되자 그로부터 2년 후인 1259년에 고려 국왕은 몽고에 항복하였다. 그러나 고려군의 항거파는 삼별초(三別抄)의 난(1270–73)을 일으켰다. 1271년에 삼별초군은 1,0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강화도에서 진도로 근거지를 옮기는 대규모의 해상기동작전을 감행하였으며, 그곳에서 전라도·경상도·부산·탐라를 잇는 남해안 일대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통치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삼별초군은 몽고군과 고려 정부군의 연합토벌군의 계속된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1271년에 다시 탐라로 이동하였으며, 그곳에서 최후의 항거를 하였다. 몽고군은 우수한 무기(火槍·火礮·火箭)로 재래식 무기(활·화살·칼·창)로만 항거한 삼별초군을 패망시켰다. 고려의 항몽운동이 연해의 섬인 강화도에서 시작하여 바다섬인 제주도로까지 이어진 것은 수전에 익숙하지 못한 몽고군의 약점을 이용한 까닭이며, 이러한 43년간 항복하지 않고



▲ 삼별초의 대몽항쟁도 (자료 : http://museum1.tistory.com/80, 2010. 12. 11)

21) 몽고군의 내침에 대한 고려 최씨정권의 대응책으로서 가까운 섬으로 피신하는 정책을 뜻한다. 고려가 이때 택한 섬은 강화도였으며, 강화도로 천도하기까지 하였다. 고려는 이 해도입보책을 총지휘하는 방호별감(防護別監)이라는 직위를 신설하기까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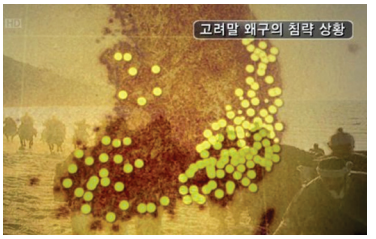
저항한 것은 몽고군의 세계정복활동에서 유례가 없는 항전활동이었다. 이후 몽고는 고려의 수군과 항몽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다른 피정복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려를 특별히 예우하였다.

몽고의 정복야욕은 일본에까지 뻗쳤다. 1274년 전함 900척과 병력 25,600명으로 구성된 여·몽 연합군은 합포(合浦)를 출항하여 쓰시마(對馬島)와 이키시마(壹岐島)를 격파하고 규슈 서북단의 마쓰우라(松浦郡)를 공략한 후 후쿠오카(福岡)의 하카다(博多)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야간에 폭풍우를 만나 연합군은 대파하여 철수하고 말았다. 7년 후인 1281년, 여·몽 연합군은 재차 일본정벌에 나섰다. 연합군은 총 14만 명이었는데, 연합군의 성격을 띤 동로군은 병선 900척 그리고 원군으로 구성된 강남군은 병선 3,500척으로 편성되었다. 연합군은 연합군의 재침을 예상한 일본군이 하카다 만 연안에 설치한 방루(防壘)를 뚫지 못하였다. 해상과 섬에서 며칠 동안 전투를 했지만,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연합군은 야간에 태풍을 만나 다시 대파되어 철수하고 말았다. 원군은 살아 돌아온 자가 20–30%밖에 되지 않았지만, 고려군은 약 50%가 살아 돌아왔다. 이것은 고려 함선이 중국 선박보다 태풍에 견디는 힘이 더 강한 덕분이었다.

왜구는 진봉무역(進奉貿易)[22]의 쇠퇴와 일본의 내란으로 1223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나, "13세기 왜구"가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않았다. 왜의 침구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350년부터였는데, 이 왜구는 "경인년(1350) 이후의 왜구"로 불린다. 이 왜구들은 200척 이상의 선박을 타고와 남해안은 물론 서해안의 강화도까지 북상하였다. 심지어 공민왕의 치세인 23년(1352–74) 동안에는 왜구의 침구가 115회 그리고 우왕의 치세 14년(1375–88) 동안에는 378회 있었다. 먼저 고려는 왜구들

22)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후반까지 1세기 동안 왜구 침입을 중단시키기 위한 고려의 외교적 대응책으로서 일본(대마도)이 매년 1회 2척의 진봉선을 고려에 보내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진봉은 아래에서 위로 바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의 근거지가 될 만한 섬들에 대해 공도(空島) 정책을 펼쳤다. 1271년에 거제도를 공도화한 것을 시작으로 진도(1350)와 남해도(공민왕)에서도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다음으로 고려는 수군력을 강화하였다. 몽고군으로부터 도입한 화약무기를 더욱 발전시켰으며, 1377년에는 최무선(崔茂宣)의 건의로 화통도감(火燁都監)을 설립하여 화약무기를 직접 제조하였다. 1380년에 왜구가 500척을 이끌고 금강 하구의 진포(鎭浦)에 출현하였는데, 심덕부(沈德符)·나세(羅世)·최무선이 지휘하는 고려 수군 100척이 화포를 이용하여 격멸해버렸다. 이 진포해전은 세계사에서 함포전(艦砲戰)을 전개한 최초의 해전사례였다. 1382년에는 정지가 진포(鎭浦)에서 왜선 50척을 발견하고 추격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듬해인 1383년에는 군산과 목포를 거쳐 남하한 120척의 왜구선단을 관음포(觀音浦)에서 조우하여 그 중 17척을 분멸하였다. 1389년에는 계속되는 왜구의 진원지를 소멸시키기 위해 박위(朴葳)가 100척의 전함을 이끌고 쓰시마로 원정하였다. 그곳에서 적선 300척과 해안 건물들을 소각하고 귀국하였다. 이 원정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첫째, 고려가 강화된 수군력을 기반으로 왜구문제에 대해 수세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바꾸었다. 둘째, 타국들의 고려에 자진 접근을 유도할 정도로 고려의 위신이 높아졌다. 셋째, 왜구의 침구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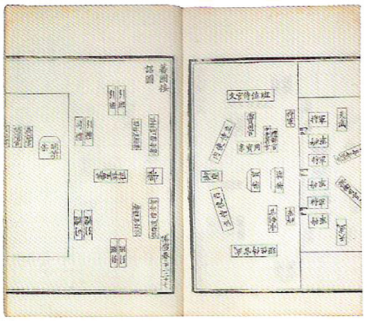
▲ 고려 말 왜구의 침략 상황 (자료 : KBS역사스페셜, http://myunggyu.blog.me/6002357462, 2006. 4. 16)

4. 조선

조선(1392–1897)은 고려의 해양관련 제도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조선의 해양정책은 주로 왜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근본적으로 왜구의 침구활동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금정책을 실시하고 또한 해방(海防) 수단과 제도를 발전시켰다. 실제로 왜구는 조선이 건국된 1392년부터 1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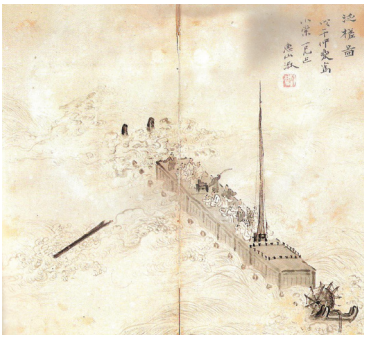
년까지 164년 동안 51회나 침구했으며, 70척이나 120척과 같이 대규모로 침구한 경우도 있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인 1426년에 이미 "사사로이 국경 밖에 내어다가 팔고 바다로 내어간 자는 곤장 1백대를 친다(私出外境貨賣及下海者, 杖一百)"는 『대명률(大明律)』에 따라 해금정책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미 1407년에 조선은 안남지방을 정벌하고서 사적인 해외무역을 금하게 했다는 사실을 사신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1422년에는 선박이 외양으로 나갈 경우에는 7-8척의 선단을 이루어야 하며, 선박통행증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해금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의 1440년과 1694년의 기록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또한 1866년에 쇄국정책이 시작되었음을 볼 때, 해금정책은 조선시대 내내 유지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 1530년대에 명나라에서 발간되어 조선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던 『대명집례』(자료 : 『고려 · 조선의 대외교류』, 국립중앙박물관, 2002, p. 70)

조선은 유구(琉球), 섬라(暹羅, 태국), 조와국(爪蛙國, 참바) 등과 표류인 송환 때문에 교섭할 뿐 다른 대외교섭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왜구의 발생을 억제하고, 일본 제후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며, 필요한 물품의 교역을 위해 일본과는 자주 왕래하였다. 특히 일본인들의 왕래가 너무 잦아지자, 조선은 1426년에 3포(乃而浦·釜山浦·鹽浦)를 개방하였다. 1443년에는 왜인들의 왕래를 제한하는 계해약조(癸亥約條)를 체결했으며, 그 후에도 임신약조(壬申約條, 1452)와 정미약조(丁未約條, 1547)를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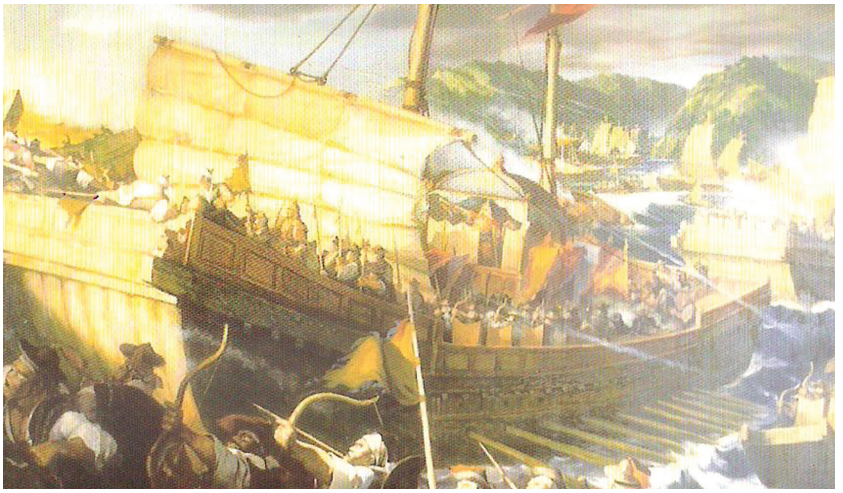
▲ 1856년 김계운이 대마도에 갔다가 표류한 모습을 그린 범사도 (자료 : 『고려 · 조선의 대외교류』, 국립중앙박물관, 2002, p. 155)

한편, 고려시대의 제도를 근간으로 했던 조선 수군은 지방 수령과 조정 감독관의 통제를 받았으며, 왜구가 창궐하는 3남 지방에는 수군절도사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였다. 1470년에 48,800명의 수군은 전국에 70여개의 기지에 245척의 병선(大猛船·中猛船·小猛船)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경상도와 전라도 및 충청도에 집중 배치되었다(『經國大典』). 1555년부터는 지상군과 수군이 합심하여 연해지구를 방어하게 하였다. 조선은 고려의 화약제조술을 계속 발전시켜 여러 종류의 총통을 만들었으며, 그 모든 것을 집대성하여 1448년에 『총통등록(銃筒謄錄)』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조선은 1419년에 병선 227척과 병력 17,285명으로 구성된 원정군을 이종무(李從茂)의 지휘 하에 보내 왜구의 근거지였던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를 계기로 왜구의 침구사건은 잠시 뜸하더니 다시 증가하였다. 1555년에는 왜구가 60척을 타고 와 전라도 남해안을 유린하는 을묘왜변(乙卯倭變)이 일어났다. 조선은 이 사건을 계기로 관찰사의 지휘 하에 수륙군이 서로 협조하는 제승방략(制勝方略)의 전략전술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일본군 침략의 전조에 불과하였다.

1592년 3월 158,700명의 일본군이 700여 척의 함선을 타고 도해하여 부산에 상륙하였다. 이른바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불리는 이 전쟁에서 일본군은 육전에서 승승장구했으나 해전에서 연전연패하자 조선조정과 강화하려고 하였다. 강화가 결렬되자 일본군은 1597년 1-2월에 141,500명의 병력으로 재침하였다(丁酉再亂). 그러나 이때에도 일본군은 조선 수군에게 대패한 후, 결국 1598년에 귀국해 버리고 말았다. 이 전쟁 기간 동안 조선 수군이 승리한 여러 해전 중에서 한산해전(閑山海戰), 명량해전(鳴梁海戰), 노량해전(露梁海戰)은 세계해전사에서, 그 해전들을 지휘한 이순신(李舜臣)은 세계위인과 명장열전에서, 주력함이었던 판옥선과 돌격선이었던 거북선은 세계 함정발달사에서, 그리고 총통을 이용한 해전방식은 해전술 발달사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임진왜란 기간에 발생한 첫 해전인 옥포해전도 (자료 : Jo Seong-do, rev. & enlarged by Kim Joo-sik & Jeong Jin-sool, Admiral Yi Sun-sin : A National Hero of Korea, Seoul : Sinseowon, 2005, p. 97

임진왜란 이후 약 150년이 지난 1746년의 기록(『續大典』)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전에 731척이었던 수군 병선이 전란 이후에는 776척이었다. 그러나 주력함은 양과 질 양면에서 모두 줄었다. 또한 남해안 중심이었던 병선의 배치도 서해안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병자호란을 전후한 숙종연간에 호서지방 연해안 경비의 강화조치와 연관이 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까지의 시기에는 수군진 135개와 모든 종류의 병선 773척 그리고 입방군(入防軍)과 영진방수군(營鎭防戍軍) 등을 포함한 병력이 134,545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수군진과 병선은 65-68%가 그리고 병력은 84%가 경상도와 전라도에 배치되었다(『增補文獻備考』). 이것은 임란 이후 19세기까지도 일본이 수군의 주요 경계대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문헌상의 수치일 뿐, 수군은 질적인 면에서 너무 허약해져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둘레가 거의 5천 리나 되므로 해방(海防)이 가장 걱정거리이다"라고 우려하는 식자도 있었다(『星湖僿說』).



▲ 1624년 사은겸주청사로 명나라에 파견된 이덕형의 사행길을 묘사한 항해조천도 (자료 : 『한반도와 바다』, 국립민속박물관 · 해상왕장보고기념관, 2004, p. 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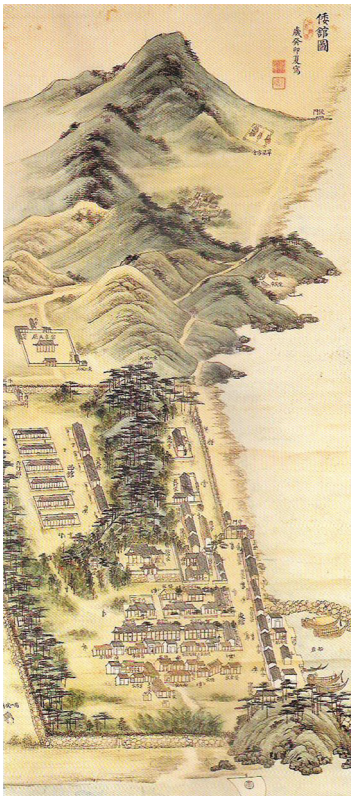
일본과의 공식적인 해양교류는 일본의 요청에 의한 조선통신사의 파견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1606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6년 동안 12회

파견되었다. 1614년부터는 일본이 울릉도의 영토권 문제를 제기하자 조선은 여러 차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표방하였으며, 1693년과 1695년에는 안용복(安龍福)이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에 알리는 영웅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양진출을 금지당한 조선인이 해양을 통해 해외로 가는 것은 표류밖에 없었다. 1599년부터 1817년까지 약 220여 년 동안 일본에 표류한 기록은 19회(『通航一覽』) 그리고 1710년부터 1884년까지 175년 동안 중국에 표류한 기록은 80회 이다(『通文館志』).

외국인이 조선에 표류한 기록은 조선인이 외국에 표류한 것보다 더 많다. 이것은 중국인과 일본인이 순수하게 표류한 사실 이외에 약탈하기 위해 조선 해안에 출몰하는 경우가 그만큼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표류는 조선인이 서구인을 접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표류를 통해 조선에 처음 온 것은 포르투갈인이었다. 1578년 프레네스티노(Prenestino)가 조선에 표류했으며, 1582 서양인 마리이(馬里伊)가 표착하였다. 이후 계속된 표착으로 조선을 알게 된 서구인들은 조선 근해를 항해하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교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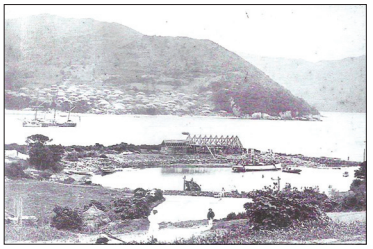
그러나 조선은 쇄국양이(鎖國攘夷)의 국시를 견고히 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양요(洋擾)가 발생하였다. 프랑스는 1866년에 천주교도의 박해사건을 구실로 로즈(Pierre Gustave Roze) 제독의 지휘 하에 군함 3척을 파견하였다가 7척으로 재침하여 병인양요(丙寅洋擾)를 일으켰다. 미국은 1866년 상선 제너럴셔먼호(General Sherman) 사건을 구실로 1871년에 로저스(John Rodgers) 제독 휘하의 함정 5척을 보내 신미양요(辛未洋擾)를 일으켰다. 일본은 1875년에 이노우에 요시카(井上 良馨)의 지휘 하에 포함 운요호(雲揚號) 사건을 일으켰으며, 1876년에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 1885-87년에는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도웰(William Mantague Dowel) 제독 휘하의 함정 3척을 거문도로 보내 점령하는 거문도사건을 일으켰다. 쇄국정책을 계속 고집하였던 조선에 대한 선진 자본



▲ 1783년 왜관도 (자료 : 『고려 · 조선의 대외교류』, 국립중앙박물관, 2002, p. 132)



▲ 표류인의 표류결로와 귀환경로 (자료 : 김영원 외, 『항해와 표류의 역사』, 서울 : 솔출판사, 2003, p. 61)



▲ 1880-1년 영국 해군장병이 거문도에 해안 창고를 건설하는 장면 (자료 : 김재승, 『근대 한영해양교류사』, 김해 : 인제대학교출판부, p. 224)



▲ 구한말 강화도에 설립한 해군병학교에서 해군사관생도들이 훈련하는 모습 (자료 : 김재승, 『근대한영해양교류사』, 김해 : 인제대학교출판부, p.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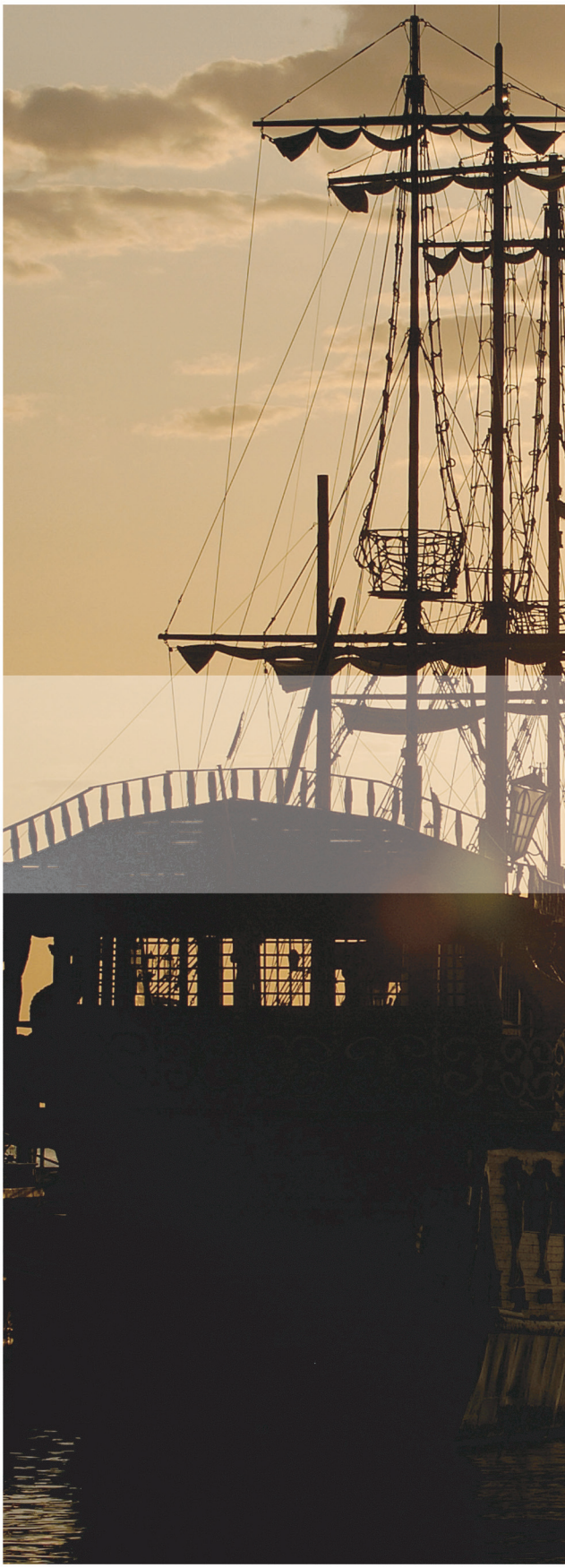
주의사회의 침입은 이처럼 해양을 통해 이루어졌다.

임진왜란 때 사용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목선과 총통 그리고 칼과 화살 같은 개인무기로 이루어진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던 조선은 증기로 추진되며, 함포와 철제 선체로 건조된 근대 함정을 보유하고, 또한 근대식 개인화기를 휴대하고 훈련받은 서구식 해군을 당해낼 수 없었다. 결국 조선은 근대국가들의 계획적인 침입들에 굴복하고서 1876년부터 1902년까지 10여 개 나라와 통상조약을 어쩔 수 없이 체결하였다. 그러나 관세사무는 청일전쟁 이전까지 청국에게 맡겨졌으며, 전쟁 이후에는 일본에게 맡겨졌다. 1880년부터 1908년까지 10여 개 항구를 무역항으로 정해 개방하였다. 1894년에는 강화도에 해군사관학교에 해당하는 해군병학교(海軍兵學校)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영국인 교사와 교관을 초빙하기까지 했으나, 청일전쟁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1900년에는 기선회사(汽船會社)가 그리고 1901년에는 통운사(通運社)가 설립되어 우편과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일본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져 일본인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1903년에는 일본에서 군함 양무호(揚武號)를 구입했지만, 국내외 정세의 악화로 일본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세계적인 추세에 스스로 완전히 눈을 감아버리고 국민들의 해양진출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조선은 20세기 전후의 시기에 피동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 했으나, 이미 때가 늦었으며, 그리하여 1910년에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일본 식민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Ⅳ

해양인물 탐구

1. 외국의 해양인물
   1) 정화
   2) 콜럼버스
   3) 넬슨
2. 우리나라의 해양 인물
   1) 이사부
   2) 장보고
   3) 이순신





Ⅳ. 해양인물 탐구

Ⅳ. 해양인물 탐구

1. 외국의 해양인물

1) 정화



▲ 정화의 초상화 (자료 : 房仲甫 · 李二和, 『與鄭和相遇海上』, 北京 : 同心出版社, 2005, 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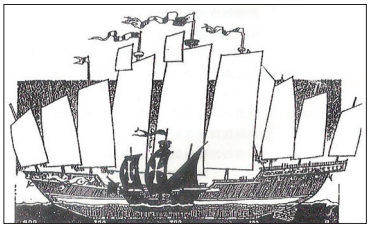
15세기 전반 약 30여 년간 거함 100여 척과 2-3만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거대한 함선을 이끌고 7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185,000㎞의 항로를 항해하여 30여 개 이상의 나라를 방문한 정화(鄭和, 1371-1434)의 해상원정은 세계 범선의 역사에서 유일하고도 최고의 업적이었다.

윈난성(雲南省) 쿤양(昆陽)에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정화의 원명은 마삼보(馬三保)였으며, 정난(靖難)의 변(1399)에서 세운 공으로 환관의 최고 직위인 태감이 되었기 때문에 삼보태감으로도 불렸다.

영락제는 황위 찬탈에 대한 국내 불만 해소와 정당화, 국위 과시, 여러 번국에게 예의 교육, 조공무역 조직과 추진을 위해 남해원정을 정화에게 명령하였다.

정화는 1405년 6월에 제1차 원정대를 이끌고 출항하였다. 원정단의 중심은 서양보선(西洋寶船)이나 서양취보선(西洋取寶船)으로 불리는 거함이

었다. 이 선박의 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는데, 1700년 이전 세계에서 가장 큰 초대형 범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 후 정화는 다음 표와 같이 모두 7차에 걸쳐 대규모 해상원정을 실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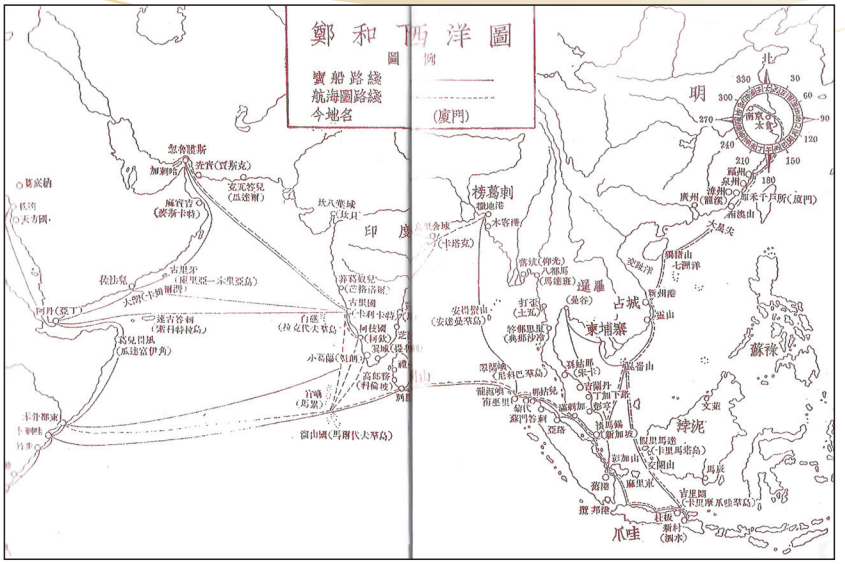


▲ 정화의 보선과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를 비교한 그림 (자료 : 房仲甫 · 李二和, 『與鄭和相遇海上』, 北京 : 同心出版社, 2005, p. 49)

▼ 정화의 해상 원정

차수	기일	함선 수(척)	인원 수(명)	방문지역
1차	1405년 겨울 – 1407년 9월	62척 (대·중·소형 선박 200여 척이라는 설도 존재)	27,800 – 37,000	Champa, Java, Malacca, Aru, Sumatra, Lambri, Ceylon, Kollam, Cochin, Calicut
2차	1407년 겨울 – 1409년 늦여름		27,000 – 30,000	Champa, Java, Siam, Cochin, Ceylon
3차	1409년 9월 – 1411년 6월		27,670	Champa, Java, Malacca, Sumatra, Lambri, Ceylon, Kollam, Cochin, Calicut, Quilon, Siam, Kaya, Coimbatore, Puttanpur
4차	1413년 겨울 – 1415년 7월			Champa, Java, Palembang, Malacca, Sumatra, Ceylon, Cochin, Calicut, Kayal, Pahang, Kelanran, Aru, Lambri, Hormuz, Maldives, Mogadishu, Barawa, Malindi, Aden, Muscat, Dhufar
5차	1417년 겨울 – 1419년 7월			Champa, Pahang, Java, Malacca, Sumatra, Lambri, Ceylon, Sharwayn, Cochin, Calicut, Hormuz, Maldives, Mogadishu, Barawa, Malindi, Aden
6차	1421년 봄 – 1422년 8월			Hormuz, East Africa, Arabian Peninsula
7차	1430년 12월 – 1433년 7월		27,550	Champa, Java, Palembang, Malacca, Sumatra, Ceylon, Calicut, Hormuz … (17개국)

그러나 영락제의 뒤를 이은 홍희제는 "하서양(下西洋)을 항해하는 보선들을 모두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며, 실제로 그 이후 중국 해선은 말라카



▲ 정화의 해상원정 항로 (자료 : 房仲甫 · 李二和, 『與鄭和相遇海上』, 北京 : 同心出版社, 2005, 속표지)

서쪽 해역으로 넘어간 적이 없었다. 영락제의 계승자들은 이 위대한 해양개척사업을 이어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해금과 쇄국정책을 사용하여 해방과 조선업 및 해상무역을 완전히 쇠퇴시켰다. 그 결과, 중국은 해양을 통해 서양과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땅을 떼어주고 배상금을 지불하며, 많은 국민이 살상당하는 전례 없는 치욕과 재난을 당했다.

정화는 해양을 통한 부국강병책과 국제관계의 형성을 중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해양을 고려해야만 한다. 재부는 해양에서 오며, 위험도 해양에서 온다." "일단 다른 나라가 남양을 장악하면 중화는 위험하다. 천하무적인 우리 선대(船隊)는 상업무역을 확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번국들을 제압하여 그들이 남양을 엿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정화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정화는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위대한 항해 업적을 이룩한 가장 뛰어난 항해가였다." "그는 명 초기 외교정책의 걸출한 집행자이자 실천가로서 명 초기 외교 전성기를 가져온 중요한 개척자이기도 하였다." "항해를 수단으로 사용하여 해외 여러 나라

와 우호적인 왕래를 하고 명 조정의 외교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그의 진정한 항해 목적이었다."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하면, 정화가 대규모 해상원정을 통해 추구한 것은 상호이익의 추구, 문화의 교류, 각 국 간의 모순 조정, 외교적 성과와 국가 존엄의 무력적 수호 등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콜럼버스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1–1506)는 아메리카 대륙 즉 신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칭송되는 동시에 원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자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대항해시대를 대표하는 해양탐험가였다.



▲ 콜럼버스의 초상화 (자료 : ed. capt. Alan Villiers, Men, Ships and the Sea, Washington D.C.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1973, p.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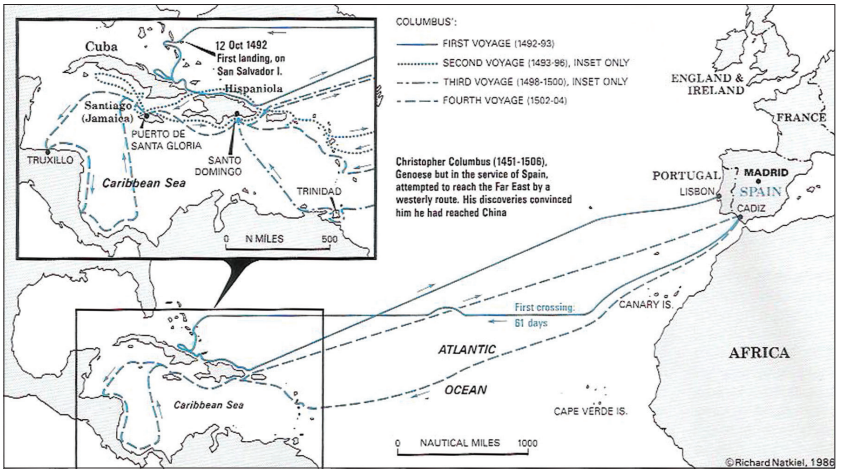
1451년 제노바의 모직공 가정에서 태어난 콜럼버스는 14세 때부터 선원으로 근무하여 항해하기 시작했으며, 1476년에 난파되어 포르투갈의 리스본(Lisbon)에 정착한 후 현지인과 결혼하였다. 제노아 출신 귀족이었던 장인(Bartolomeo Perestrello)은 포르투갈 엔리케(Henrique) 왕자의 해양사업을 돕고 있었다.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동안 아프리카 탐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였다.

콜럼버스는 1485년과 1488년 두 차례에 걸쳐 포르투갈의 왕 주앙 2세(John II)에게 대서양 탐험의 후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그는 동생을 프랑스와 잉글랜드로 보내 후원을 요청하게 했으며, 자신은 스페인에 요청하였다. 스페인의 두 군주(Ferdinand II of Aragon과 Isabella of Castille)는 콜럼버스가 3회나 요구한 후원을 포르투갈과의 해외선교경쟁에서 이기려는 교회측 설득을 받아 무슬림의 최후 거점인 그라나다를 정복한 후인 1492년에 수락하였다. 스페인은 콜럼버스가 요구한 3가지 요구(대 제독의 직위, 발견한 땅의 총독 지위, 총 수익의 1/10 보장)를 수용했으며, 탐험선 2척(Pinta & Nina)과 예산 및 인력 등을 제공하였다. 후에 개인선박 1척(Santa Maria)이 이 원정에 더 참여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의 지

원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실제 항해는 6년 후인 1492년에야 실시되었다.

제1차 항해는 1492년 8월 3일부터 1493년 3월까지 3척의 선박으로 실시되었다. 그의 항로는 Palos de la Frontera(Spain)—Canary Islands—Rodrigo de Triandad(원명 Guanhani, 후에 San Salvador로 개명)—Cuba 북동부 해안— Hispaniola 북부 해안—La Navidad(Haiti)—Lisbon(Portugal, 폭풍)—Spain이었다. 그는 아이티를 인도의 일부라 생각하고 그곳 원주민을 인디언으로 불렀다. 또한 그곳에서 좌초로 산타마리아호를 잃었으며, 히스파니올라에 40여 명의 대원을 남겨놓았다. 귀국 시 인디언 25명을 대동했는데, 그 중 7–8명만 스페인에 도착하였다. 그는 가져온 금제품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제2차 항해는 1493년 9월 24일부터 1496년까지 17척의 선박과 1,200명으로 실시되었으며, 대부분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었다. 항로는 Spain—Canary Islands—Dominica—Marie–Galante—Les Saintes—Guadeloupe—Lesser Antilles—Virgin Islands—Greater Antilles—Puerto Rico—Hispaniola—Fuerte de la Navides—La Isabela—Cuba—Jamaica—Hispaniola—Spain이었으며, 도중에 눈에 띄는 섬들마다 이름을 붙였다. 그는 남겨놓은 대원들이 인디언들에게 전멸되었음을 알고 라이사벨라를 건설하여 식민지 행정관이 되었다. 인디언에게 공납과 부역



▲ 콜럼버스의 대항해 항로 (자료 : Richard Natkiel & Antony Preston, Atlas of Maritime History, London : Weidwnfeld & Nicolson, 1986, p. 101)

을 하게 했지만, 금 산출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인디언들의 수족을 잘랐으며, 도망친 노예들을 사냥하여 죽였고, 노예로 만들어 본국에 보냈다. 일부 인디언들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족별로 집단자살을 하기도 하였다. 25만 명의 원주민이 이러한 대량학살 때문에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제3차 항해는 1498년부터 1500년까지 6척으로 실시되었다. 그의 항로는 Sanlúcar—Porto Santo—Modeira—Canary Islands—Cape Verde—Trinidad—Gulf of Paria—Orinoco River—Chacachacare Island—Magarita Island—Tobago—Grenada—Hispaniola—Spain이었다. 그는 오리노코 강 하구를 발견하고서 에덴 동산의 입구로 간주했으며, 항해 도중 히스파니올라에서 반란이 일어나 무능한 행정력 때문에 본국에 송환되었다.

제4차 항해는 1502년 5월 11일부터 1504년 11월 7일까지 4척으로 실시되었는데, 콜럼버스는 자기 형과 13살 된 아들을 대동하였다. 항로는 Cadiz—Arzilla—Carbet(Martinique)—Santo Domingo—Rio Jaina—Jamaica—Guanaja—Puerto Castille—Panama—Rio Belen—Cayman Islands—St. Ann's Bay—Hispaniola–Sanlúcar였다. 그는 파나마 지협을 발견하였다.

그는 12년 간 항해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곳을 1506년 5월 20일 스페인에서 죽을 때까지 줄곧 인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1498년 포르투갈이 인도항로를 개척하고 다른 항해자들의 활동에 의해 콜럼버스가 항해한 곳이 대서양이었음이 밝혀지자 그가 도착하여 활동한 카리브 해를 서인도제도로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인의 활동무대가 되었으며 또한 오늘날 미국이 탄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콜럼버스의 항해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사례는 많다. 1792년에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행사가 뉴욕에서 처음 열렸다. 1869년



▲ 1492년 히스파니올라에 상륙하여 원주민을 만나는 콜럼버스 (출처 : ed. capt. Alan Villiers, Men, Ships and the Sea, Washington D.C.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1973, p. 101)

19월 12일 샌프란시스코의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이 그의 서인도제도 도착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는데, 1937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10월 12일을 "콜럼버스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1년부터는 미국의 여러 주가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콜럼버스의 날(Columbus Day)"로 기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각 지방에는 콜럼버스라는 지명이 많이 있다. 1697년부터는 "신세계"를 지칭하는 단어로 콜럼버스의 여성형인 콜럼비아(Colombia)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777년부터는 "아메리카"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여러 지명, 인명, 주명, 회사명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대항해시대에 아메리카 대륙에 최초로 도착한 것이 아메리고 베스푸치(Amerigo Vespucci, 1451–1512)였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푸치와 연관된 이름이 없고 콜럼버스와 관련된 이름이 많은 것은 미국인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베스푸치보다 콜럼버스에게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넬슨



▲ 호라시오 넬슨 제독과 그의 정부였던 해밀튼 엠마 부인 (자료 : ed. Margarette Lincoln, Nelson & Napoleon, London : National Maritime Museum, 2005, p. 93)

호레이쇼 넬슨(Horatio Nelson, 1758–1805) 제독은 영국을 침공하려는 나폴레옹의 영국 침공 계획을 해상에서 좌절시키고 전사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것은 물론 대영제국의 기반을 완성하고 유럽 근대사와 전쟁사에 큰 영향을 준 위대한 영웅으로 간주되고 있다.

영국 노포크의 한 마을(Burnham Thorpe)에서 교구목사 부부의 11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난 넬슨은 12세인 1771년에 해군에 입대하여 외삼촌(Maurice Suckling)이 지휘하는 함정(HMS Raisonnable)의 장교후보생이 되었다. 그는 상선을 타고 서인도제도를 항해한 후, 1777년에 임관하였다. 1773년에는 북극탐험에 참가했으며, 그 후 동인도에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귀국하였다. 1780년에는 니카라과(Nicaragua) 원정에 참여했다가 와병으로 귀국하였다.

미국 독립전쟁(1780–82) 기간에는 북아메리카 전대에 합류하여 퀘벡과

뉴욕을 방문했으며, 1784년에 최초로 함장(Boreas)이 되었고, 1787년에 귀국하였다. 1793년에는 프랑스와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함장(Agamemnon)이 된 넬슨은 지중해를 항해하여 나폴리를 방문했으며, 1794년 1–8월에 코르시카(Corsica)를 원정하였다. 그는 1794년 7월 12일 칼비(Calvi) 전투에서 함포지원 중 부상을 당해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다.

1796년에는 프랑스 해안에 대한 봉쇄작전을 전개하였으며, 1798년 2월 14일에는 세인트 빈센트(St. Vincent) 해전에 참가하여 배스기사(Knight of the Bath) 작위를 받았다. 7월 24일에는 산타 크루즈(Santa Cruz)를 공격했으나 실패했으며, 이 때 적탄의 명중으로 오른쪽 팔을 절단하고서 귀국하였다.

1798년 8월 1일 나일 강(Nile) 해전에서 머리에 부상을 당했지만, 프랑스 함대를 격파하여 남작이 되었다. 같은 12월 23–26일에는 나폴리 왕족을 프랑스 침입군으로부터 구출하였고, 1799년 6월에 나폴리를 탈환하였으나 해밀턴(Hamilton) 부인과의 스캔들로 귀국하게 되었다. 1801년 4월 2일에는 코펜하겐(Copenhagen) 해전에 참여하였다가 전공으로 자작이 된 후, 6월에 귀국하였다. 8월 15일에는 불로뉴(Boulogne)를 공격했으나 실패하고 귀국하였다.

1804년에 지중해함대사령관이 된 넬슨은 1804년에 툴롱(Toulon)에서 프랑스함대를 봉쇄했으며, 1805년 4월 7월까지는 서인도제도로 항해하는 프랑스함대를 추적했으나 실패하여 8월 18일 귀국하였다. 9월 28일 카디즈(Cadiz) 함대사령관으로 임명된 그는 10월 21일 트라팔가르(Trafalgar) 해전에서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를 격파했으며, 그 전투 도중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가르 해전 (자료 : ed. Margarette Lincoln, Nelson & Napoleon, London : National Maritime Museum, 2005, p. 195)

넬슨이 치른 주요 전투는 다음과 같다.

▼ 넬슨이 치른 해전 목록

일시	해전명	사령관		참가세력		피해		비고
		영국	적국	영국	적국	영국	적국	
1795. 3. 14	Genoa	Hotham	Pierre Martin	14척	13척	1척 상실 부상 400	2척 상실 사망 600 부상 100	넬슨의 Agamemnon이 Çalra를 격파
1797. 2. 14	Cape St. Vincent	Jervis, Nelson	José de Córodoba	22척	31척	전사 73 부상 327	4척 나포 전사 50 부상 530 생포 3,000	전열유지명령 무시, 적 함대 선봉 3척을 공격
1796. 12. 15-16	Cartagena	Nelson	Don Jacoba Stuart	2척	2척	나포 1 (적함 2척 추가 출현으로 석방)		적군에게 생포된 Hardy와 생포한 Don Jacoba Stuart를 맞교환
1797. 7. 22-25	Santa Cruz	Nelson	Antonio Gultlérrez	9척 4,000명	1,700명	1척 격침 전사 30 부상 128 생포 300	전사 30 부상 40	오른팔 적탄 명중, 절단
1798. 8. 1-3	Nile (Aboukir Bay)	Nelson	François-Paul Brueys	15척	17척	전사 218 부상 677	격파 4척 나포 9척 사상 3-5천	나폴레옹의 인도 진출 좌절
1801. 4. 2	Copenhagen	Hyde Parker, Nelson	Olfert Fischer, Steen Bille	30척	36척	전사 350 부상 850	나포 12척 격침 2척 폭발 1척 사상 1,600-1,800	덴마크-노르웨이 연합함대
1805. 10. 21	Trafalgar	Nelson	Pierre de Villeneuve, Federico Gravina	33척	41척	전사 458 부상 1,208	나포 21척 파괴 1 전사 3,243 부상 2,538 생포 8,000	프랑스-스웨덴 연합함대

트라팔가르 해전 직전, 넬슨은 "영국은 각자 의무를 다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장병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며, 전사할 때에는 "임무를 다할 수 있게 해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영국은 그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루었는데, 왕족이 아닌 국장대상인물 5인 중 1명에 속하게 되었다. 그는 나일 강 해전 때 침몰시킨 로리앙호(L'Orient)의 돛대로 만든 관에 들어가 성 바울 성당에 묻혔다.

그는 부하들의 전투의지를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능력(Nelson Touch), 치밀한 전투계획의 수립, 전투 시 유연한 기동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야전사령관이자 제독으로 불린다. 유부녀와의 스캔들과 상관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등의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전사 다음 해에 43.5m의 기념비를 트라팔가르 광장에 세웠으며, 그의 기함(Victory)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고, 승전일인 10월 21일을 해군기념일로 삼고 있다.



▲ 트라팔가르 해전이 끝날 무렵 영국함대의 기함 빅토리호에서 넬슨 제독이 전사하는 모습.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자료 : ed. Margarette Lincoln, Nelson & Napoleon, London : National Maritime Museum, 2005, p. 225)

2. 우리나라의 해양인물

1) 이사부



▲ 이사부 장군의 원정 출전지 표시비 (자료 : http://cafe.daum.net/ziwolll/6bB6, 2010. 7. 1)

이사부(異斯夫, ?–562)는 신라가 국기의 기반을 다진 6세기에 우산국을 정벌하고 신라 영토에 복속시킨 업적 때문에 우리 민족사에서 해양영토를 최초로 개척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다.

313년 낙랑·대방군이 철폐되자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패권경쟁으로 서남해 해상교역로가 경색되었다. 중국계 문물의 수입로가 차단되자, 신라는 북방—동해안—신라—왜로 이어지는 동해안 교역로를 개척하였다. 4세기 후반에는 백제가 서남해 교역권을 장악했으며, 가야는 백제에 동조하였다. 따라서 신라의 동해안 교역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졌으며, 신라는 교역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4세기 말에는 신라가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오던 고구려가 강성해졌으며, 400년에는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요청으로 병력 5만여 명을 파견하여 신라에서 백제군과 왜군을 축출하고 주둔하였다. 그러자 신라는 백제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고구려에 대항했으며, 그 과정에서 450년 하슬라(何瑟羅, 현 강릉) 성주 삼직(三直)이 사냥하는 고구려 변장을 살해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468년(悉直城, 현 삼척)과 481년(彌秩夫, 현 흥해)에도 고구려군의 침입이 있었다. 신라는 493년에 백제와 혼인동맹을 맺는 한편, 동해안의 조직적인 진출과 관리를 위해 주(州)와 군주(軍主)를 중심으로 편제를 신설하였다.



▲ 이사부 축전의 현수막 (자료 : 2010년 7월 28일자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503년에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新羅)로 확정하였다. 505년에는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하고, 이사부를 군주(軍主)로 임명하였다. 그로부터 7년 후인 512년에는 하슬라주의 군주가 된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그 후 568년까지 신라는 동해안에서 강릉·언변·고성으로, 소백산맥 방면에서 상주·개령으로, 한강 하류 방면에서 이천·서울로, 그리고 가야 방면

에서 창녕으로 진출하였다. 이것은 신라가 먼저 동해안 방면을 우선적인 진출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서 오늘날 삼척지역을 최초의 핵심기지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우산국(于山國)은 해마다 토산물을 조공으로 신라에 바치는 속국이었다. 울릉도의 설화에 따르면, 우산국의 통치자는 우해왕(于海王)이었다. 그는 왜구들의 우산국 침구활동이 잦아지자 군사를 이끌고 항해하여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로 가 수장을 만났다. 대마도 수장은 항복하고서 자신의 셋째 딸 풍미녀(豊美女)를 주어 왕후로 삼게 하였다. 우해왕은 풍미녀가 원하는 것이면 신라 연안을 약탈해서라도 다 들어주었으며, 항의하는 백성들을 학살하였다. 이 설화는 우산국이 신라의 속국에서 벗어나 대마도까지 해상원정을 하고 신라 연해안을 약탈하는 해상강국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왕명에 의해 우산국 정벌에 나선 하슬라주 군주 이사부는 우해왕이 앞장을 선 우산국 군사들이 바다에서 물거미처럼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싸웠기 때문에 1차 원정에서 상륙하지도 못하고 패배하여 되돌아왔다. 512년에 제2차 원정을 나선 이사부는 무력으로 우산국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지략을 이용하였다. 이사부는 나무로 사자상(獅子像)을 만들어 함선들의 함수에 설치하였다. 그는 우산국 함선들과 조우했을 때 덮어놓은 보자기를 갑자기 벗기면서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자들을 풀어놓겠다고 위협하였다. 크게 놀라 동요한 우산국 병사들은 항복을 뜻하는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목사자는 "신라의 트로이 목마"로 불리고 있다.

항복 조건은 왕과 국가의 칭호 사용 금지, 울릉도에 대한 신라 하슬라 군주의 통치, 신라 연안에 대한 노략질 금지, 오징어 조공 등이었다. 우해왕에 대해서는 항복한 후 가난한 어부로 살았다는 설과 자기 딸을 이사부에게 첩으로 바치고 자결했다는 설이 있다.

이사부는 541년에 병부령과 이찬을 겸하여 내외병마사를 관장했으며,

545년에는 이찬으로서 국사 편찬을 건의하였고, 550년에는 고구려의 도살성과 백제의 금현성을 탈취했으며, 562년에는 가야 반란을 진압하였다. 따라서 이사부는 동해안, 울릉도, 가야 지역의 군사정벌은 물론 한강 유역의 정벌에서도 공을 세웠다. 그는 신라가 국가의 기반을 다져가고 중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그의 공은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의 공에 비해 더 컸으면 컸지 적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해양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사부는 우산국을 해상원정을 통해 군사력으로 정벌하여 신라 영토로 편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최초의 해양영토 개척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사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역사적 근원을 제공하는 우리의 해양역사 위인인 것이다.

2) 장보고



▲ 장보고의 표준 영정 (자료 : 『청해진의 꿈 해상왕 장보고』, 서울 :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6, p. 4)

장보고(張保皐, 790?–851 혹은 856)는 신라 말기에 해당하는 9세기 전반에 서남해역에서 해적을 일소하고 제해권을 장악하여 신라·당·왜 삼국의 중개무역을 독점적으로 실시한 인물로서 우리 민족의 해양사에서 최초이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해양개척자였다.

676년 삼국을 통일하고 130여년이 지난 9세기 초는 후삼국시대가 도래하기 100여 년 전이자 신라가 멸망하기 130여 년 전이었다. 신라 지배층은 평화가 장기간 지속되자 사치와 향락에 빠졌으며 또한 권력투쟁을 일삼았다. 백성들은 거듭되는 기근과 흉년으로 도둑이 되었으며(815), 중국으로 건너가거나(816) 일본으로 건너갔다(811–824년의 14년간 13회에 걸쳐 826명의 신라인이 도일).

장보고는 9세기 전후에 섬(海島, 현 莞島)의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성이 없이 궁복(弓福)이나 궁파(弓巴)로 불렸다. 장보고는 도당했을 때 사용한 이름이며, 일본에서는 장보고(張寶高)로 불렸다. 그는 일생을 통해

4회의 목숨을 건 모험활동을 하였다.

그는 신분에 따른 한계를 절감하고 꿈을 안고 810년에 절친한 친구(鄭年)와 당으로 건너갔다. 당시 도당은 오늘날 외국에 무작정 밀항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밀항 자체는 물론 당나라의 예측할 수 없는 생활 때문에 첫 번째 해양모험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산동반도는 평로치청절도사(平盧淄靑節度使) 겸 해운압신라발해양번사(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였던 고구려 유민 이정기(李正己)의 세력 하에 있었다. 이씨 일가는 765년부터 819년까지 55년 동안 산동반도를 통치했으며, 발해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당에 대한 조공사절단의 파견이 어려워진 신라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장보고는 이정기 세력을 진압하는 임무를 수행한 서주(徐州)지방 무령군(武寧軍)에서 복무했으며, 공을 많이 세워 30살에 군중소장(軍中小將)의 직위에 올랐다. 그러나 반란이 진압된 후 821년에 감군정책이 실시되자, 외국인이었던 장보고는 10여 년의 군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외국인으로서 당나라군의 장교가 되어 실제 전투에 여러 차례 참여하는 것은 그의 두 번째 모험이었다.

장보고는 전역 후 8년 간 당에서 생활한 후 828년 전후에 귀국하였다. 그는 신라 국왕(興德王)을 알현하고 군사 1만 명을 요구하여 완도에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그의 세 번째 모험이었다.

당시 신라인들은 해적에게 붙잡혀 당에서 노비로 매매되고 있었으며, 신라의 요청으로 황명으로 이를 금지하는 조칙을 여러 차례 반포하기도 했다(816·821·823·828). 장보고는 이러한 현장을 당에서 목격하고 분개하여 해적소탕을 수군진의 설진 이유로 내세웠다.

장보고의 공식적인 직위는 청해진 대사(大使)로서 신라역사상 그에게만 부여된 직위였다. 이것은 엄격한 골품제 사회에서 천민 출신인 그에게 정상적인 직위를 부여하지 못하고 별도의 명칭을 만들어 부여한 지배층의 고민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장좌리(長佐里)의 장도(將島)에 설진된 청해



▲ 완도의 주봉 상황봉에서 바라본 청해진 본영터 장도 (『해상왕장보고 유적 · 유물 도록』, 서울 :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 p. 29)



▲ 장보고가 산동반도 서쪽 끝단 적산에 건립한 법화원의 복원 모습 (『해상왕장보고 유적 · 유물 도록』, 서울 :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 p. 151)

진은 대사(大使)·부장(部長)·병마사(兵馬使)·압아(押衙)·총관(總管) 등의 직으로 미루어 볼 때 신라가 아닌 당 번진의 군제와 유사하였다.

장보고의 해양활동 업적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신라의 주변 해역에서 약탈과 인신매매를 일삼던 해적을 소탕하였으며, 해상질서를 바로잡았고, 해상평화를 이룩한 점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제해권의 장악을 기반으로 당과 일본의 해역무역까지 독점했으며, 그 과정에서 해외교포들을 이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청해진 세력이 수군과 상인들로 구성되어 반상반군(半商半軍)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의 이러한 해양활동에서 비롯되었다.

서남해역은 많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다도해이고, 남해와 서해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후에 비옥한 호남평야와 그 평야를 관통하는 영산강이 있고, 신라의 중심지역에서 먼 변방에 속하기 때문에 해적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최적지였다. 해적은 중국과 일본의 기록으로 볼 때 당인과 신라인으로 구성되었던 것 같다. 해적 중에는 상인이 돌연히 해적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청해진 세력의 무역선에는 상인과 수군이 동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해진이 설진된 후 신라인을 잡아가는 해적이 사라졌다.

장보고가 전개한 해상무역은 당·신라·일본 삼국의 중개무역이었다. 또한 이 무역은 조공을 통한 공무역과는 다른 일종의 사무역에 해당하였다. 이 해상무역에는 신라의 해외교포들이 동원되었다. 중국 해안지방에는 신라인들이 집단거주지가 많았는데, 신라방(新羅坊)·신라촌(新羅村)·신라소(新羅所) 등으로 불렸다(宿城村·邵村浦·望海村·乳山浦·驕馬浦·赤山浦·漣水鄕·楚州·東梁豊村·如皐鎭·揚州·廣州·鎭明嶺·新龍村·黃巖). 일본에도 신라인의 집단거주지가 있었다(下毛野國·武藏國·度田郡·新羅郡·博多津·遠江·駿河).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수집, 상품의 적재적소 수급, 상품가격의 고가화, 상품 운송비의 절감, 국내 제조업의 발전, 산업기술의 도입, 국내상업의 활성화, 해외교포들의 경제적 도움, 고향에 대한 향수 해소, 조국에 대한 자

부심 고취 등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본 이러한 무역형태는 청해진 세력으로 하여금 중국 명주와 양주까지 진출한 아랍상인들과 접촉하여 실크로드를 북중국과 신라 및 일본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장보고는 24년간 5명의 왕(興德王·僖康王·閔哀王·神武王·文聖王)이 바뀔 만큼 치열했던 왕위계승전에 자의반타의반으로 연루되었다. 흥덕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김명(金明) 일파가 권력을 장악하여 희강왕이 즉위하였다. 반대파였던 김우징(金祐徵)은 청해진으로 피신하였다. 838년 1월 김명은 희강왕을 자결하게 만들고 자신이 민애왕으로 즉위하였다. 이 왕위 찬탈 소식을 들은 김우징은 장보고의 병력 5천 명의 지원을 받아 정부군 3천명과 싸워 이겼다(鐵冶縣). 839년 신무왕으로 즉위한 김우징은 장보고를 감의군사(感義軍使)로 삼고 식읍 2천 호를 하사하였다. 그 뒤를 이은 문성왕은 839년에 그를 진해장군(鎭海將軍)으로 삼고 의복을 하사하였다. 정치문제에 대한 개입은 장보고의 4번째 모험이었다.



▲ 장보고를 모시고 있는 일본 엔랴쿠샤의 적산궁 (『해상왕장보고 유적 · 유물 도록』, 서울 :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 p. 295)

그런데 845년 3월에 장보고의 딸을 두 번째 왕비로 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신하들이 맹렬히 반대하여 왕비문제가 무산되자, 장보고가 앙심을 품고 반역하려 했으며, 이에 김양의 부하였던 염장(閻長)이 암살해버렸다. 이 내용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후에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천민 출신 장보고가 그의 딸을 왕비로 삼으면 정치력까지 장악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 한 골품제의 지배층이 암살해 놓고서 왕비문제로 반역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웠던 것처럼 보인다. 왕비문제는 신무왕이 장보고에게 피신해 있을 때 자진 약속한 것이었다.

장보고가 암살된 후, 청해진 세력은 구심점을 잃었으며, 장보고를 암살한 염장이 장보고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국외로 피신하거나 망명하였다. 청해진은 장보고의 암살자인 염장의 지휘아래 10여 년 간 유지되었다. 청해진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장보고 세력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보복당할까 두려움을 느낀 지배층은 851년 2월 김제 벽골군으로 유민 전체를 강제 이주시키고, 청해진을 혁파해버렸다. 그러나 재당신라인과 재일신라인 그리고 신라 본국인으로 구성된 청해진 세력은 자신들의 유대관계를 이용하면서 삼국의 교역활동을 계속하였다. 왕건이 예성강 하구에서 나주까지 해상 원정을 감행하여 후백제의 견훤군을 물리칠 때 나주 오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왕건과 나주 오씨가 모두 장보고 세력으로서 유대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장보고를 재물신으로 모시고 있는 일본 경도의 적산선원(『해상왕장보고 유적 · 유물 도록』, 서울 :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 p. 299)

장보고의 영향은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주었다. 중국 산동반도 석도진(石島津)에는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터가 있었는데, 엔닌이 창건한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에 의해 작은 규모로 복원되었다. 그러나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후, 중국은 한·중·일 삼국의 사료를 제시하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1994년에 한국 대통령이 법화원 주변에 기념탑을 세웠으며, 중국 지방정부는 법화원 주변 13,000㎡의 대지에 3,020㎡의 건평으로 장보고 기념관을 건립하여 2005년 4월에 개관하였다.

일본 천태종의 3대 좌주인 원인(圓仁)은 10년간 당을 순례하면서 장보고 휘하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당 체류기간의 1/3을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에서 보내기도 하였고, 귀국할 때에도 장보고 함선을 빌어 탔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연력사(延曆寺)의 별원인 적산선원(赤山禪院)이 장보고를 지칭하는 적산명신(赤山明神)을 모시고 있다. 5대 좌주인 원진(圓珍)은 원성사(遠城寺)에 신라선신당(新羅善神堂)을 세워 신라신을 모시게 했다.

아랍인들은 장보고 선단과의 접촉으로 신라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중세 아랍문헌(『여러 도로와 왕국지』·『중국과 인도 소식』·『황금 초원과 보석광』)에 단편적이나마 신라의 자연환경과 인문지리 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랍상들 덕분이었다. 아랍인들이 신라에 직접 온 시기는 청

해진 세력이 해체되어 중개무역을 할 수 없게 된 때였으며, 고려가 건국된 후 한반도와의 무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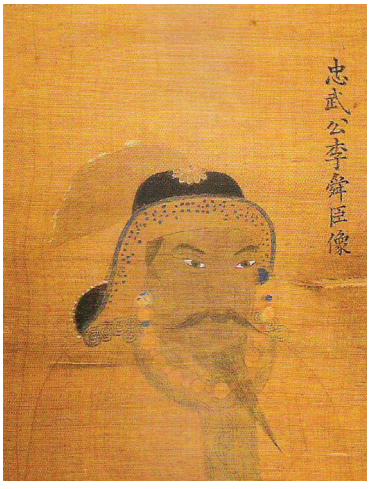
장보고 시대는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가 한반도로 축소된 이후 지정학적 조건을 가장 잘 이용한 전무후무한 사례에 속한다. 비록 사반세기라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장보고는 당·일본·신라를 잇는 해역을 우리 민족의 내해(內海)로 만들어 신라를 당대 최고의 해양국으로 변모시켰던 것이다. 게다가 장보고는 중국과 일본에서 오늘날까지도 추앙받고 있는 우리의 역사 위인으로서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3) 이순신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은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 때 조선 수군을 총 지휘하여 백전백승함으로써 왜군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해양수호자이다.

이순신은 한양 건천동(乾川洞)에서 평범한 선비집안(덕수 이씨 12대 손)의 4형제 중 3남으로 태어났다.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로 조부가 참변을 당하여 가세가 빈곤해지자자 어릴 때 아산군 염치면 백암리(牙山郡 鹽峙面 白岩里)로 이사를 갔다. 그는 사대부 출신이라 서당을 다니며 문과 공부를 하다가 20세 때 보성(寶城)군수 방진(方震)의 딸과 결혼하였다. 22살이던 1566년부터 무과를 준비하기 위해 무예를 수련하기 시작한 이순신은 6년 후인 1572년에 무과 시험을 보았으나 기마술 시험 때 낙마하여 낙방하였다. 4년 후인 1576년에 재응시한 그는 29명의 합격자 중 12등(保人 丙科 四人及)으로 합격하였다. 그러나 문과 시험에나 나올 수 있는 질문에 유창하게 답하여 시험관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이순신이 군 장수로 근무한 기간은 함경도 공구비보 권관으로 발령받은 1576년 12월부터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1598년 11월까지 햇수로는 23년간이고 달수로는 252개월이다. 그중에서 무보직 기간이 64개월(25%)인



▲ 조선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순신 초상화.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자료 : 『충무공 이순신 : 삶에서 신화까지』, 국립진주박물관, 2003, p. 10)

데, 그 유형은 무과에 합격한 후 발령을 받을 때까지 대기(10개월), 군기경차관(軍器敬差官) 서익(徐益)의 장계에 의한 파직(4개월), 관례에 따라 부친상에 의한 휴관(24개월), 2회에 걸친 백의종군(16개월), 구금(2개월), 특사에 의한 귀향(8개월)으로서 6가지이다. 파직과 귀향기간이 12개월로서 근 1년을 차지하는 것은 백의종군까지 감안할 때 이순신이 무관생활 초기부터 중징계를 많이 받았음을 의미한다.



▲ 이순신이 수결을 연습한 것을 보여주는 난중일기의 한 페이지 (자료 : Jo Seong-do, rev. & enlarged by Kim Joo-sik & Jeong Jin-sool, Admiral Yi Sun-sin : A National Hero of Korea, Seoul : Sinseowon, 2005, p.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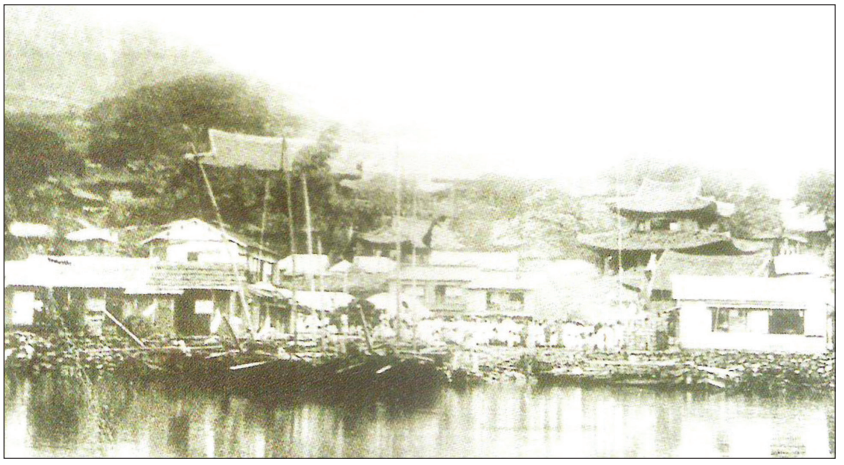
이순신이 전라좌수사가 되기 전까지 중앙부처에서의 근무기간은 22개월이었으며, 지상군에서의 근무기간은 74개월이었고, 수군에서의 근무기간은 114개월이었다. 지상군 보직은 6가지였으며, 그중에는 백의종군을 한 시기도 포함되어 있다. 수군보직은 발포만호(鉢浦萬戶), 전라좌수사, 삼도수군통제사, 백의종군으로 4가지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이순신의 수군 보직은 발포만호 1가지로서 20개월의 기간이었을 뿐이었다. 지방 근무지는 함경도 동북부와 서북부의 국경지역과 그리고 전라도 남해안지역이었다. 발령이 취소되거나 미처 부임하지 못한 지역들이 평안도 북부 국경지역과 전라도 서남해 도서지방이었다는 사실마저 감안할 때, 이순신은 주로 변방의 오지에 위치한 최일선 부대에서 근무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전라좌수사가 될 때까지 만 16년간 평범한 무관이었던 것이다.

이순신이 주요 관직에 오르도록 추천한 사람은 유성룡·이용·정언신·이광·이산해였는데, 그들은 동인(東人)에 속했거나 이순신과 종친인 사람들이었다. 물론 그중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유성룡이었다. 그는 주요 고비 때마다 직접 나서서 혹은 제3자를 통해 이순신의 발령과 승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순신이 관력과 승진은 비록 소수이긴 하나 인사추천자들의 적극적인 후원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순신은 1591년 2월 13일에 전라좌수사에 임명되었는데, 좌수사는 오늘날 소장급 함대사령관에 해당하는 직위였다. 일본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 그는 "수군을 없애고 육전에만 전력을 기울여

야 한다"(申砬)는 주장에 대해 "바다로 침입하는 적을 저지하는 데에는 수군을 따를 만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는 전란에 대비하여 예하부대의 병력과 전비태세를 점검했으며, 신상필벌제로 표창과 징벌을 동시에 실시하였고, 훈련을 하였다. 게다가 그는 여러 종류의 총통을 제조하고, 전선을 건조하였으며, 스스로 병법(『增損戰守方略』)을 공부하였다.

전력증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거북선(龜船)의 건조였다. 건조를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1598년 2월 8일 돛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천을 마련하였으며, 3월 27일에는 육상에 놓여있는 채로 거북선에서 총통 시험발사를 하였고, 4월 12일에는 포범(布帆)을 완성하여 거북선을 해상에서 시운전하면서 총통(地·玄字砲)을 시험 발사하였다. 일본군의 부산침략 하루 전에 거북선의 건조와 시운전 및 시험발사까지 마쳤던 것이다.



▲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전라좌수영의 1899년 모습 (자료 : Jo Seong-do, rev. & enlarged by Kim Joo-sik & Jeong Jin-sool, Admiral Yi Sun-sin : A National Hero of Korea, Seoul : Sinseowon, 2005, p. 55)



▲ 1980년 해군에 의해 복원된 거북선 (자료 : Jo Seong-do, rev. & enlarged by Kim Joo-sik & Jeong Jin-sool, Admiral Yi Sun-sin : A National Hero of Korea, Seoul : Sinseowon, 2005, p. 65)

일본은 "명나라를 치러 가는 데 길을 내달라(征明假道)"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592년 4월 13일 18,700명의 일본 선봉군이 700척의 함선을 타고 쓰시마의 오우라(大浦) 항을 출항하여 부산을 침략하였다. 이어서 침공해온 일본군 총 규모는 약 20만 명이었으며, 그중에서 수군은 9,000명이었다. 제대로 방비하지 못한 경상우수영(元均)은 산하의 전선을 방화하여 자침시키고 도망쳤다. 부산지역 성들은 왜군에게 저항했지만, 부산성(4/14)과 그리고 기장과 양산(17일)이 차례로 함락되었다. 일본군은 침략한지 18일 만인 5월 2일에 한양을 그리고 2개월 만인 6월 13일에 평양을 각각 함락시켰다. 의주에 피신해 있던 왕은 여차하면 명 영토로 도망가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이 지휘하는 전라좌수영 수군은 지상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는 관할구역 밖(경상해역)으로 군사력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 왕의 허락을 받아 5월 4일 첫 출전을 감행하였다. 그는 첫 해전인 옥포해전부터 줄곧 승리만 하였는데, 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이순신이 치른 해전목록

출전 횟수	해전명	지휘관		참가세력(단위 척)		피해	
		조선	일본	조선	일본	조선	일본
제1차 (92.5/4~9)	옥포해전(92. 5/7)	이순신 원균	藤堂高虎 堀内氏善 毛利나 小早川의 부하	91	30 혹은 50	부상 1명	당파 26 사상 4,080명
	합포해전 (92. 5/7)		脇坂安治, 九鬼嘉隆, 加藤嘉明의 부하		5		당파분멸 5척 사상 840명
	적진포해전 (92. 5/8)				13		당파분멸 11 혹은 13척 사상 2,000명
제2차 (92. 5/29 -6/10)	사천해전 (92. 5/29)	이순신 원균	脇坂安治, 九鬼嘉隆, 加藤嘉明의 부하	26	12 400명	사상 : 47 혹은 58명	당파분멸 12척 사상 2,600명
	당포해전(92. 6/2)		龜井玆矩 龜井眞矩		21 300명		당파분멸 21척 사상 2,820명
	제1차 진해해전 (92. 6/5)	이순신 원균 이억기	불명	51	6		당파분멸 6척 사상 880명
	제1차 당항포해전 (92. 6/5)		加藤淸正의 부하		26		당파분멸 26척 사상 2,720명
	율포해전 (92. 6/7)		來島通久 來島通之 來島通之·通總 형제		7		당파분멸 6척 사상 1,100명
제3차 (92. 7/4-13)	한산도해전 (92. 7/8)	이순신 원균 이억기	脇坂安治 脇坂左兵衛 渡邊七右衛門 眞鍋左馬允	여러 설 -56 -59 -109 -108	73	사상 115, 134, 혹은 135명	도주 14척 나포 12척 당파분멸 59 혹은 66척 참수 86명 사상 8,980명
	안골포해전 (92. 7/10)		九鬼嘉隆 加藤嘉明의 부하		42 혹은 40		당파분멸 20척 참수 250명 사상 3,960명
제4차 (92. 8/24-9/2)	장림포해전 (92. 8/29)	이순신 원균 이억기	불명	166 혹은 180	6	사상 31명	당파분멸 6척
	부산포해전 (92. 9/1)		毛利輝元 藤堂高虎 坂安治 藤嘉明 九鬼嘉隆		498 혹은 430 수군 8,000 육군 10,00		당파분멸 128척 사상 8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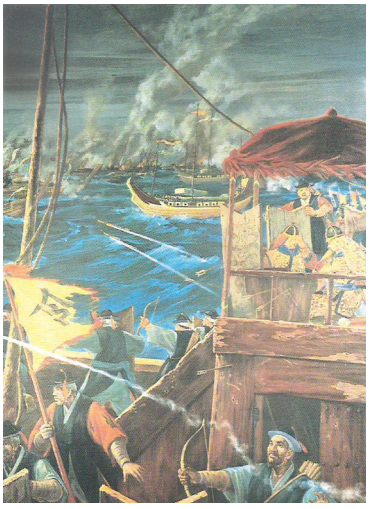
출전 횟수	해전명	지휘관		참가세력(단위 척)		피해	
		조선	일본	조선	일본	조선	일본
제5차 (93. 2/6–4/3)	웅포공략전 (92. 2/10, 12, 18, 20, 22, 26, 3/6)	이순신 원균 이억기	脇坂安治 九鬼嘉隆 加藤嘉明	89	115 16,000명	2척 사상 380명	대파 20척 사상 2,500명
제6차 (93. 5/7–7/14)	없음						
제7차 (94. 3/3–7)	제2차 진해해전 (94. 3/4)	이순신 (통제사)	불명	31	10	없음	당파분멸 10척
	제2차 당항포해전 (94. 3/5)		脇坂安治 九鬼嘉隆 加藤嘉明의 부하	60 혹은 124	42 혹은 40		당파분멸 21척 혹은 30
제8차 (94. 9. 27–10/8)	장문포 공략전 (94. 9/29, 10/1, 4)	이순신	–장문포 : 福島正則 戸田勝隆 伊集院摠節 – 영등포 : 島津義弘 島津忠恒	50 혹은 269 수군 20,770명	–장문포 : 117 15,000명 – 영등포 : 70–80 1,000 혹은 6,000명	사상 4명	당파분멸 2척 사상 다수
	벽파진해전 (97. 9/7)	이순신	불명	13	12 혹은 (주간) 13, (야습) 20	없음	불명
	명량해전 (97. 9/16)	이순신	藤堂高虎 加藤嘉明 脇坂安治 来島通總 波多信時 菅達長 毛利高政 森高政	12 혹은 13	130 혹은 133 26,600명	사상 73명	당파 31 혹은 92척 사상 18,466명
제9차 (98. 7/18–24	절이도해전 (98. 7/19)	이순신 진린	藤堂高虎 加藤嘉明 森高政의 수하	85	100	사상자 30명	당파분멸 50척 대파 50 사상 16,667명
제10차 (98. 9/15–10/12	예교(왜교) 공략전 (98. 9/20, 21, 22, 10/2, 3, 4)	이순신 진린	小西行長	연합수군 372 혹은 585 병력 15,000명	100 13,700 혹은 15,000명	조선 사상 360명 명군 분멸 39척 사상 2,500명	당파분멸 30척 나포 11척 사상 4,000명
제11차 (98. 11/9–19)	노량해전 (98. 11/19)	이순신 진린	島津義弘 立花統虎 高橋統增 寺澤正成 宗義智	146, 380, 혹은 460 병력 19,600명	300 혹은 500 병력 12,000 혹은 60,000	분멸 1 혹은 6척 사상 300명	당파분멸 200척 혹은 250척 도주 50 혹은 100척 참수 500명 사상 53,333명



▲ 김용환 화백이 제작한 명량해전도 (자료 : Jo Seong-do, rev. & enlarged by Kim Joo-sik & Jeong Jin-sool, Admiral Yi Sun-sin : A National Hero of Korea, Seoul : Sinseowon, 2005, p. 191)

이순신은 자신의 전라좌수영은 물론 전라우수영(李億祺), 충청수영(丁傑), 경상우수영(원균)과 합동작전을 하였다. 각 수사들은 동급 지휘관이기 때문에 지휘체계상의 문제가 대두하였다. 조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93년 8월 1일 삼도순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를 신설하여 이순신을 임명했는데, 이는 충청·전라·경상도의 수군 전체를 관할하는 수군지휘관으로서 오늘날 중장급 작전사령관에 해당하였다.

이순신은 평시에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전력증강을 위해 노력했으며, 전시에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함으로써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이순신의 승리는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지상군의 보급로를 차단시켰으며, 그 때문에 일본 지상군은 이동하지 못하다가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순신은 수군으로 전쟁의 국면을 일방적인 후퇴와 패배에서 반격으로 바꾸었으며, 자신의 꿈이 좌절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화병으로 죽게 만들어 전쟁을 끝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정창섭 화백과 문학진 화백이 공동 제작한 노량해전도 (자료 : Jo Seong-do, rev. & enlarged by Kim Joo-sik & Jeong Jin-sool, Admiral Yi Sun-sin : A National Hero of Korea, Seoul : Sinseowon, 2005, p. 226)



▲ 이순신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무속화 (자료 : Jo Seong-do, rev. & enlarged by Kim Joo-sik & Jeong Jin-sool, Admiral Yi Sun-sin : A National Hero of Korea, Seoul : Sinseowon, 2005, p. 295)

해전에서 연전연승과는 달리, 이순신의 군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백의종군(白衣從軍)을 두 차례 하였다. 1587년 8월 여진족의 기습으로 피해를 입자, 병마사는 녹둔도(鹿屯島) 둔전관인 이순신의 책임으로 허위보고하였다. 이순신은 파직되어 이듬해 8월 6일 귀가할 때까지 약 1년 동안 백의종군하였다. 이순신은 원균을 위시한 반대파의 모함과 국왕인 선조의 오판으로 1597년 2월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심문을 받은 후, 4월 1일 특사로 풀려나와 8월 3일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될 때까지 만 4개월 간 두 번째로 백의종군하였다. 1592년 5월 29일 사천(泗川)해전에서 어깨에 적탄이 명중되어 부상당했으며, 1597년 4월 11일에는 백의종군 기간에 모친이 사망하였고, 같은 해 9월 16일에는 아들(李薈)이 전사하였다.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1598년 11월 19일 전사한 후 우의정(12월 4일)과 영의정(1793)으로 추증되었으며, 선무일등공신(宣武一等功臣)으로 선정되었고(1604), 충무(忠武)라는 시호(1643)를 받았다. 오늘날 이순신 관련 사당이 전국에 50여 개가 있으며, 비나 탑은 47개 이상이 있다. 또한 우표, 지폐, 주화에 이순신의 초상이나 거북선이 그려져 있다. 당대의 일본인들은 이순신을 두려워하여 해전을 회피했으며, 20세기 일본제국 해군은 이순신을 연구하고 존경했으며, 그러한 분위기는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다. 이순신은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역사적 위인이 되었다.



바다 이야기

중학생용

해양역사편 문제

해양역사편 문제

01 인류 역사에서 변화를 일으킨 수단이자 변화 역할을 한 공간은 (　　)이었으며, 인류 역사의 무대가 전 지구로 확대된 것은 (　　) 때문에 가능하였고, 실제로 (　　)을 주도적으로 이용한 국가나 민족이 세계사를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정답 → 해양

02 유럽사에서 최초로 해양력을 보유했던 페니키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선과 군함을 최초로 구분하여 건조하였다.
②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지중해 제해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하였다.
③ 기원전 600년 전후에 아프리카 대륙을 일주하는 항해를 하였다.
④ 일부 세력이 카르타고를 건설하여 로마와 포에니전쟁을 하였다.

정답 → ④

03 서양 고대사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아테네의 주요 활동무대는 지중해 동부와 에게 해였다.
② 아테네와 로마제국은 이슬람 세력의 지중해 진출 때문에 멸망하였다.
③ 아테네와 로마는 주요 활동무대 대문에 지중해 국가와 지중해 제국으로 불린다.
④ 로마의 세계적인 제국으로의 성장은 카르타고의 해양력을 인수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정답 → ②

04 유럽사의 무대가 유럽 대륙 전체로 확대된 780–1070년까지 약 300년간은 유럽사에서 (　　)로 불린다.

정답 → 바이킹시대



05 대항해시대의 특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유럽중심주의의 과도한 전개 욕구에서 비롯되었다.
② 유럽인은 아시아의 문화를 자신의 문화에 동화시키려 하였다.
③ 식민지 쟁탈, 제국주의, 평창주의, 문화적 우월주의, 인종주의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④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들이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정답 → ④

06 대항해 시대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 아닌 것은?

① 유럽세계의 중심지역이 지중해 동부에서 서부로 바뀌었다.
②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으로 유럽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다.
③ 식민지 획득을 위한 제국주의적 팽창경쟁이 시작되었다.
④ 동양과 서양이 상호 교류하여 전 세계인이 평등하게 되었다.

정답 → ④

07 아시아의 고대 해양활동이 아닌 것은?

① 서복(일면 서불)이 불로장생약을 구하기 위해 항해한 곳은 오키나와와 타이완이었다.
② 베트남지역이 해상교역 침체기에 들어간 것은 기원전 300–400년 북방민족 오호의 침입 때문이었다.
③ 기원전 111년 한무제가 건설한 식민지였던 베트남 지역에서 인도 남부까지 항하는 데 1년이 걸렸다.
④ 사치품과 불교용품의 수요 증가로 420년경에 해상교역을 다시 활발하게 한 것은 동남아시아인들이었다.

정답 → ①

08 다음 중 중국에서 해상교역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대는?

① 한(漢) ② 수(隋) ③ 당(唐) ④ 송(宋)

정답 → ④

09 영국이 대영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는?

① 스페인 ② 네덜란드 ③ 독일 ④ 프랑스

정답 → ③

10 현대 해양강대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서구문화를 신중하게 조금씩 받아들였다.
② 해양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18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③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후 다시 해양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6·25전쟁이었다.
④ 1950년대부터 해양을 주목하기 시작한 중국은 오늘날 유럽인을 대신하여 해양활동의 주역이라는 평을 받기도 한다.

정답 → ①

11 한국의 고대 해양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마한과 변진에서는 해상무역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고구려는 일본과 양자강 하구의 오와 교섭할 정도로 해양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③ 중국 사서에 나타나는 백제의 요서경략설은 백제의 활발한 해상활동과 해양경제활동을 말해주고 있다.
④ 5세기부터 수군을 보유한 신라는 6세기에 우산국을 점령하고 바다관련 총괄기구인 해사부를 설치하였다.

정답 → ②



12 고려의 해양활동이 아닌 것은?

① 초기에는 여진족에 대비하기 위해 수군력을 강화하고, 동해안 요지에 1,000여척의 함선을 배치하였다.
② 송이 건국된 후에는 송과만 해상교류를 하였으며, 11세기부터는 주로 송상과 아랍상이 고려와 송의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다.
③ 고려가 원에게 항복한 후 다른 피정복국들과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려의 수군 중심의 장기 항몽활동 덕분이었다.
④ 왜구의 침구가 활발해진 것은 1350년 이후였으며, 고려 말 대왜구활동은 명량해전, 노량해전, 대마도 원정, 오키나와 원정이었다.

정답 → ④

13 왜구에 대한 조선의 조치가 아닌 것은?

① 3포를 개방하고, 일본인의 교역활동을 제한하였다.
② 3도에 수군력을 집중 배치하고,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③ 대명률에 따라 해금정책을 실시했으며, 조선 말에는 쇄국정책으로 이어졌다.
④ 을묘왜변 직후 제승방략의 전략전술을 수립하였고, 안용복이 울릉도를 조선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 ④

14 조선 말 대한제국기의 해양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선 말기에 조선인이 서구인을 접하게 된 계기는 서구 선박의 표류 덕분이었다.
② 쇄국정책을 고집하던 조선에 대한 선진 자본주의사회의 유입은 해양을 통해 이루어졌다.
③ 1894년에 강화도에 해군사관학교에 해당하는 해군병학교를 설립하고, 영국인 교관을 초청하기까지 하였다
④ 1900년대에는 기선회사와 통운사 등을 설치하여 우편과 화물운송 업무를 외국의 간섭 없이 우리 손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정답 → ④

15 정화가 7차에 걸친 해상원정 때 방문하지 않은 곳은?

① 인도 ② 중동 ③ 아프리카 ④ 필리핀

정답 → ④

16 콜럼버스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포르투갈 엔리케 왕자의 후원으로 해상탐험을 할 수 있었다.
② 그가 1차 해양탐험에 이용한 선박은 산타마리아호, 프린스호, 비너스호 3척이었다.
③ 4차 탐험을 통해 큰 명성을 얻었지만, 원주민 대량학살자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④ 미국인이 콜럼버스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했기 때문이다.

정답 → ③

17 넬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야전사령관이자 제독으로 불리고 있다.
② 영국 해군기념일은 넬슨의 트라팔가르 해전 승전일인 10월 21일이다.
③ 영국은 스캔들을 일으킨 해밀턴 부인을 넬슨의 국장 때 초청하여 장례를 치렀다.
④ 넬슨은 일생을 통해 여러 차례 전투를 했는데, 그 와중에서 2회 부상을 당해 오른쪽 눈과 오른 팔을 잃었다.

정답 → ③



18 이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찬으로서 국사 편찬을 건의하고, 사서편찬인력을 양성하였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영토 개척자로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역사적 근원을 마련하였다.
③ 하슬라주 군주였던 이사부는 첫 해상출전 때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용하여 울릉도를 점령하였다.
④ 동해안, 울릉도, 가야, 한강 유역, 제주도의 정벌에서 공을 세워 국가의 기반을 다지고 중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답 → ②

19 장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에서 귀국하여 흥덕왕을 알현하고 설치한 청해진은 수군진이었다.
② 당군에 입대한 후 이정기 반란 진압에 참여하여 군중소장이 된 적이 있다.
③ 청해진 설치 후 활동은 해적 소탕, 해상질서 구축, 제해권 확보, 삼국의 해상중개무역이었다.
④ 장보고는 여러 국가에서 숭앙받고 있는 우리 위인인데, 그 유적지는 중국, 일본, 대만에 있다.

정답 → ④

20 이순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무관생활을 하는 도중 백의종군은 총 3차례 하였다.
② 1차 무과 시험에 낙방한 후 열심히 공부하여 2차 무과 시험 때 장원 급제하였다.
③ 전라좌수사가 되기 전에 이미 전라도 경상도 수군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수군을 잘 알고 있었다.
④ 수군으로 전쟁의 국면을 일방적인 후퇴와 패배에서 반격으로 바꾸었으며, 일본의 침략 야욕을 좌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답 → ④

이 책을 만든 사람들

기획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아카데미
윤진숙 학장
백인기 책임연구원
손규희 책임연구원
이슬기 연구원

저자

해양환경/과학편
김경렬 교수(서울대학교)

해양문화/관광편
김성준 박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양역사편
김주식 박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양정책/국제협력편
신창훈 박사(한국해양연구원)

해양산업 I (수산업편)
차철표 교수(부경대학교)

해양산업 II (해운 · 항만편)
박창호 교수(재능대학교)

PPT 제작 : 이호림 · 박지애

캐릭터 제작 : 김광수

도움을 주신 분들

전문가 감수

해양환경/과학편 : 손규희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문화/관광편 : 김성귀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역사편 : 윤진숙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국제협력편 : 현대송 교수(국민대)

해양산업 I : 신영태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산업 II : 정봉민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육 관계자 감수

강진아(인천공항중학교)
곽효길(대성중학교)
김문정(인천동산중학교)
김상환(인천해사고등학교)
김화섭(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유재은(덕수고등학교)
이병호(죽산중학교)
임은성(인천동양중학교)
최용필(백석고등학교)
홍진표(강서고등학교)

바다이야기 (중학생용)

발 행 일 : 2011년 1월
발 행 인 : 김학소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편집 · 기획 : 해양아카데미
주 소 : 121-2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번지
전 화 : 02-2105-2924
팩 스 : 02-2105-4989
인 쇄 : 비전테크